

성도의 빛 3

198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3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빛 어린이란

성도의 빛

1988년 3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랜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롭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63권, 제24권, 제3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88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03KO

PRINTED IN KOREA 3/88

© 198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form 3579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가두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켄 백스터가 그린 1987년
작 유희화, “섬머셋 레인.”(교회 예술품 및
유적지 소장)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본지의 대관장단 메시지에서 영국에서 지낸
선교 사업 시절을 회상한다.

목차

| | |
|----|--|
| 36 | 물몬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특별한 의미를 지닌 축복”, 매리 앨렌 에드 |
| 2 | 대관장단 메시지 : 선교 사업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나를 올린 니파이삼서”, 라즈 아케브란트 |

| | |
|----|--|
| 39 | 행복—독신자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없음 마울라 밀텐버거 |
| 7 | 번쩍이는 것이 모두 다 해의 왕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퀸 지 맥케이 |

청소년란

| | | | |
|----|-------------------------------|----|---|
| 10 | 꿈이 실현됨 요한 슈나이더 | 44 | 사각형을 사각형이라고 함 잭 에스 마샬 |
| 12 | 성신 : 내 옆에 살아 임재하심 롤라 비 윌터즈 | 46 | “각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느니라” 토나 와닉 |

| | | | |
|----|------------------|----|---------------------------------|
| 14 | 성신의 속삭임 한스 코르 | 47 |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스터얼링 더블류 실 장로 |
|----|------------------|----|---------------------------------|

| | | | |
|----|--|-------------------|--|
| 16 | 자살 :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성도의 빛 어린이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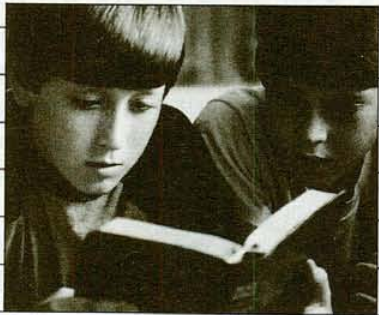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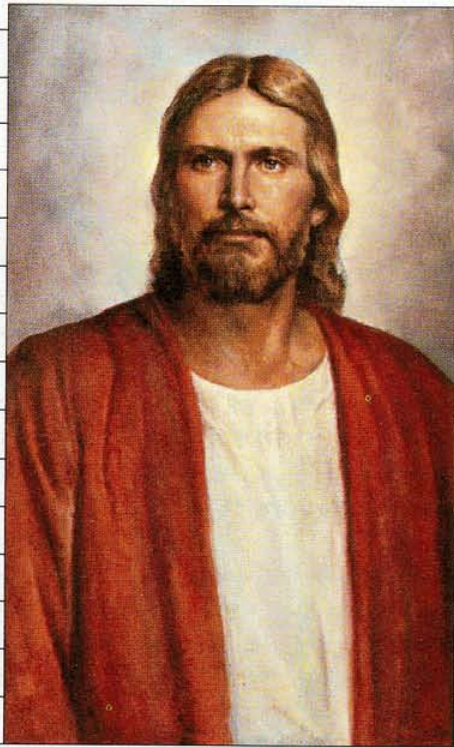
| | |
|----|--|
| 2 | 예수님처럼 친절함 패트 그래햄 |
| 21 | 후퍼 자매 세릴 앨런 |
| 4 | 아빈아다리와 노아 왕 |
| 24 | 자녀에게 친구와 우정에 대하여 가르침 6 제시와 다이애나 클라우디아 레밍턴 |

| | | | |
|----|------------------------|---|--------------|
| 29 | 너무 늦을 뻔한 월요일 레이첼 윌드 | 8 | 심심풀이 : 점선 잇기 |
|----|------------------------|---|--------------|

교회 및 지역 소식

| | |
|----|----------------------------------|
| 30 | 질의 응답 가정에서의 신권 지도력 |
| 32 | 방문 교육 메시지: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
| 33 |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패트리시아 티 홀랜드 |

읽는 도시



선교 사업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보좌

우리는 모두 신앙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업을
스스로 떠맡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받들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에 깊이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오 늘날 세상의 상태에 대하여 생각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보게 될 때면 나는 엘마처럼 소리쳐 울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천둥 같은 목소리로 회개와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 땅 위에 다시는 슬픔이 깃들지 않게 할 수 있으면만,”(엘마서 29:1~2)

사뮤엘 스미스가 교회가 조직되기도 전에 새로 출판된 물문경을 몇 권 가방 속에 넣고 그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지역 사회에 보급하려고 애썼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선교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통계를 갖고 있는 가장 최근의 해인 1986년은 이 사업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한 해였습니다. 그해 말에 31,803명의 선교사가 선교 사업에 임하여 216,210명의 개종자에게 침례주었습니다. 오늘날 스테이크의 평균 회원이 2,500명이라면 1986년에 개종만으로 86개의 새 스테이크 회원에 해당되는 수자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며 1986년에 86개의 새 스테이크가 생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극적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사업의 시작에 불과함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지금 단지 시작되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름을 받아 왔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지시입니다. 그러나 받은 무르익어 있고 일군은 적습니다.

여러분은 엘마가 보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시간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판사의 직을 그만 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마가 이같이 행함은 저의 백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저들의 임무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자만과 교활함과 불화를 막으려 하였으니, 이는 오직 순수한 간증으로서만 저들을 다스려 돌아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이라.”(엘마서 4:19)

이와 똑같은 이유로 오늘날 세상은 순수한 간증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며, 세상이 복음을 들으려면 그것을 가르칠 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일찍부터 자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족 기도가 있고, 가정의 밤이 있고, 경전 읽기가 행해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에서 활동적이며 교회와 복음에 관하여 열의를 갖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는 열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가정에는 선교 사업의 전통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지극 통장을 만듭니다. 소년은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하며 성장합니다. 선교 사업은 교육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년의 인생의 계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오늘날 세상은 순수한 간증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며,
세상이 복음을 들으려면 그것을
가르칠 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합니다.
 그도 역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봉사함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 출신으로서 선교 사업을 나가는 젊은 남녀의 수자를 보면 특별히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멕시코에는 선교사의 약 사분의 삼이 그 지역 선교사로 되어 있으며 아시아에는 3,809명의 선교사가 있고 그중 1,589명, 약 42퍼센트가 아시아인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그런 나에게 있어, 이 수자는 정말로 훌륭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떤 일본인 형제와 그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들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마사오 와타베 부부의 가족과 비교해 봅니다. 와타베 형제는 일본의 교회에서 수많은 직책에서 봉사했습니다.

현재 그는 성임된 축복사입니다.

그들은 돈이 많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돈을 모았읍니다. 마사히사는 일본으로 갔읍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을 받아 도에 전문가가 되었읍니다. 마사지는 일본에서 봉사하고 그곳에서 교육받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어떤 일본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마사카주는 브라질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브리감 영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마사수에는 후꾸오까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지금은 샌프랜시스코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선교사 대업을 통하여 봉사하는 동안, 그들 자신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왔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네번째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만의 타이페이 성전에서 와타베 형제는 성전장의 보좌로 와타베 자매는 매트론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찾고 우정 증진함

이제 나는 모든 회원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면, 즉 스테이크 선교 사업에 관하여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스테이크에는 스테이크 선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비회원이 없든지, 있어도 조금밖에 없고 모든 회원이 활동적인 좀 드문 상황에서만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테이크 선교사의 주된 임무는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접촉하고 회원들이 자신의 선교사 책임을 완수하도록 도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이크 선교사는 복음 선교사와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구도자가 될 사람들 그들을 가르칠 복음 선교사에게 소개합니다.

스테이크 선교사는 개종자 침례 후에는 그 개종자가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올 때 흔히 수반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우정 증진 공과를 가르치는 책임을 맡습니다. 이 적응에는 옛날 친구, 친지, 옛날 방식을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 회개와 더 나은 품행을 하겠다는 다짐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의 개종자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선교사와 회원들이 개종자가 강한 간증을 쌓도록 도와 주기 위하여 개종자와 함께 일하는 훌륭하게 조직된 스테이크 선교부로 인해 그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십 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한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청년을 침례주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자질을 타고 났으며 교육도 받았습니 다. 그는 진지하고 경건했습니다. 동반자와 나는 그 사람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그가 침례받은 후에 귀환했습니다.

우리의 그 개종자는 수줍음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이 되고 얼마 안되었을 때 그의 소속 지부에서 어떤 책임을 맡았다가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비판받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날 밤 그 모임을 떠난 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 다. 그는 좀더 잘 알아야 할 그의 연장자의 무심한 말로 상처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계속 서신을 주고 받으며 이 새로운 개종자를 찾아내고자 애썼습니 다. 그러다가 제이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입대했습니다. 그는 전쟁 후 결혼했으며, 얼마 후 아내가 세상을 떠나 그의 생애에 큰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크게 발전하여 영국 사업계에서 인정받는 능력있는 중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옛날 한 지부 모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생김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 냈습니다. 그는 다시

결혼했으며 은퇴하여 유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번 그를 방문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쓰고 책자와 기타 자료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도 나에게 편지를 쓰고 우리는 친구입니다. 이 훌륭한 사람을 나와 함께 가르쳤던 그 동반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 다. 나는 우리의 이 친구의 신앙을 되살리기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모두 다해 왔습니 다. 현재까지는 그 노력이 결실이 없습니다.

가끔 나는 우리가 그를 찾아낸 그 훌륭한 방법을 회상합니다. 우리가 그를 가르치면서 함께 보낸 그 많은 시간을 회상합니다. 그가 침례받겠다는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마음 속으로 겪었던 갈등에 대하여서도 회상합니다. 그가 교회를 찾아내고서 기뻐했던 것도 생각납니다. 그리고는 그를 잃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함

교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업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정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작은 것들이며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상당히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큰 비극은 교회에 가입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잃어 버리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사에게서 침례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그들의 침례를 정당화할 지식과 간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가입하면서 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의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게 아끼던 신념을 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의 변화와 취향을 억제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독과 심치어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개종자의 생애에서 이 어려운 기간에는 키워 주고 강화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를 교회에 있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 다. 선교사들의 오랜 노력과 그들이 봉사해온 경비, 예전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옴 및 이것과 관련된 모든 충격 등으로 인하여 이 귀중한 영혼을 환영하고 다시 확신을 주고 그들이 약할 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주고 격려해, 주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업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위대한 프로그램에 누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하나님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의 희생적인 봉사의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며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후 4:14, 16)

“네가...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이 선교 사업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합니다. 그는 신앙이 커집니다. 그의 능력이 커집니다. 그의 이해력이 커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그도 역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매우 드문 예를 제외하고 이 교회에서는 누구나 선교사가 그를 가르쳐 주었거나 그의 조상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교회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일어서서 자신이나 자기 조상에게 이 구원과 영생의 사업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된 사람에 대한 간증을 하고 감사를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밭에서 일할 일꾼을 더 많이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들을 돕고 개종자로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축복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업을 스스로 떠맡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받들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에 깊이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 회원에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명령 즉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 부모는 자녀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격려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족 기도, 가정의 밤, 경전 연구를 하고 교회와 복음에 관하여 열의를 갖고 말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 선교 지역에서 부부 선교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은퇴한 부부와 곧 은퇴할 부부는 선교 사업을 고려해 보고 그들의 감독이나 지부장과 함께 그 가능성을 의논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4. 교회 회원은 누구나 새 개종자가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온 다음 뒤따르는 적응을 하도록 도와 주는 일에 대하여 개인적인 관심을 갖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토론 유의 사항

1. 주님의 교회에서 선교 사업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만한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번쩍이는 것이 모두 다 해의 왕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퀸 지 맥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중산층—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존 은 인생에서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재정적으로 성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거나 감독으로서 또는 주님이 아무리 나를 많이 필요로 하신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게 될 거야.”

존은 재정적인 독립을 성취할 것을 원할 뿐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몰바치기 위하여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한 존은 구세주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19~24)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릇된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야곱이 지적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선행을 위하여...혈땀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피 구제”하기 위하여 부를 구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야곱서 2:18~19) 후에 부를 구해도 좋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의롭게 살고 “영원한 재물”을 향유하려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 언제나 모든 활동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교성 68:31 참조)

의롭게 생활하는 것의 가장 고상한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것에 못지 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로 부와 권력과 직위와 명성을 구한다. 그들이 부를 추구하는 동기는 보통 더 좋은 자동차, 더 큰 집, 좀더 비싼 옷을 갖고 싶은 욕망에 기인하고 있다. 그들의 자선 기부는 이런 일차적인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야 행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선 행위도 권력과 명성에 대한 욕구라는 그릇된 동기를 지니고 있을 때가 흔히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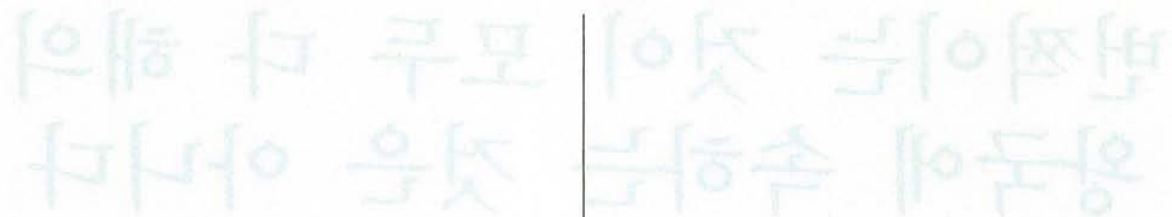
세상적인 성공은 거의 언제나 재정적인 성공에 의하여 측정되며 때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정당화한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돈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좀 봐. 그의

동기가 나쁘다고 해서 상관이었겠나?”

물론, 그 답은 분명히 상관이었다는 것이다. 재정적인 성공에 집착하면 이기심이 조장되는 경향이 있다.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즉 자동차, 집, 더 많은 옷, 세상의 헛된 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다. “나와 나의 것”을 위해 “좋은 생활”을 얻으려는 이런 노력은 “나는 이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다. 나는 이것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 다른 사람도 좀더 야심을 갖는다면 이런 것을 소유할 수 있을텐데.”(가난한 사람은 일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며)라는 생각을 품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희생 정신을 흐리게 하며 이기심과 교만한 정신을 키우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한 사람들도 부를 열렬히 추구하다 보면 너무나 쉽사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탐욕에 굴복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개구리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만일 개구리를 끓는 물냄비에 떨어뜨리면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즉시 튀어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그 개구리를 찬물이 담긴 냄비에 넣고 점차적으로 열을 더해 가면 그 개구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익어 버리고 만다.

그릇된 이유로 부를 추구할 때는, 그 개구리 원리가 작용하기가 극히 용이하다. “좋은 차”, 그 다음에는 그 차에 어울리는 더 나은 집, 그 다음에는 그 집에 어울리는 더 나은 가구를 사기에 충분한 돈을 축적하는 과정이 전개된다. 이 모든 것은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며 마침내 사치스런 것에 대한 기호는 이기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때로는 사람이 사회 진출을 추구하는 가운데 개구리 원리의 희생자가 된다. 처음에 어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윤리관과 어긋나는 일을 행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런 사람도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행동으로 점차 굴복하게 되는 수도 있다.

처음에는 과장, 축소, 일부 정보의 누락 등으로 진실을 조금만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런 행동은 “여기서는 만사가 그렇게 처리되고 있어.”라는 말로 쉽사리 합리화된다. 거기서부터 그 회사(혹은 자기 자신)가 믿을 수 있다거나 정직하다거나 훌륭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금씩 은폐시키려는 작은 일단계가 시작된다.

이러한 은폐 행위는 처음에는 소규모의 것이나, 남비 밑의 불처럼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는 명백하게 부정직한 어떤 일을 행하게 되고 만다. 죄로 가는 길은 한번에 크게 도약해 가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도 그릇된 길로 나아 갈 수 있다. 그것은 헬라만의 아들 니파이도 말한 바 있다. “오 어찌하여 너희는 바로 너희...하나님을 잊었느냐? 보라 이는 오직 너희가 재물을 쌓으며,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며, 금을 얻으려 하였음이라.” 그는 계속해서 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어떻게 하여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히 7: 20~21 참조)

요컨대, 부를 얻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각종 죄에

가득찬 욕망을 키우는 경향이 있어서, 흔히 사람들이 기독교인다운 생활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져 가게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주님과 그의 사업에 중심을 두면 중요한 여러 면에서 좀더 그분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계명을 지키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이기심과 탐욕이 제거된다.

둘째, 교만의 죄를 버리게 된다. 나누어주는 것과 동정심은 우리 생활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재물은 어떤 것이든지 교만하고 뽐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대해지기 위한 자원이 된다.

셋째,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맨 먼저, 우리 이웃을 두번째로, 우리 자신을 세번째로 생각하며,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건전한 우선 순위이다.

존과 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기 전에 부를 구하는 것의 위험함을 인식해야 한다. 사실상 부는 주님을 섬기는 능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농사짓는 사람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교실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충실하고 능력이 있으면 봉사할 기회를 갖고 있다.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요 다만 지혜를 구하여야 하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니, 그리하면 부한 자가 되리라. 보라, 영생을 가진 자 그가 곧 부자니라.”(교정 6: 3~7) □

이점에 대하여 이야기합시다!

1. 우리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든 가난하다고 생각하든,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기 원하실 것인가?
2.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훈계에 관하여 좀더 이해하려면, 교리와 성약 56편 16절에서 19절까지 읽고 토의한다.

이 품

1988년 3월호



꿈이 실현됨

요한 슈나يدر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머뭇거리면서 “여보, 어제 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두 젊은이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 교회에 가입하는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우리는 결코 우리 교회를 떠날 것을 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다는 데 동의했다.

그 꿈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거의 일년이 지난 후 퇴근해서 집에 오자 아내가 “오늘 두 젊은이가 자기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우리 집에 왔다.”는 말을 했다. 나는 아내의 얼굴에서 한 줄기 염려하는 흔적을 보았다. 나는 자신있게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을거요.”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글쎄요, 그들은 내일 당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보고 싶다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며칠 후 문을 열자 두 명의 깔끔한 젊은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뒤이어 대화를 하면서 그들은 “오늘날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고 믿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아내와 나는 이미 그 이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우리는 만일 참된 교회가 있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리가 모두 다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회는 완전하지 못했다. 나는 “만일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모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 선교사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당시의 교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조직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계시를 받고 있다고 덧붙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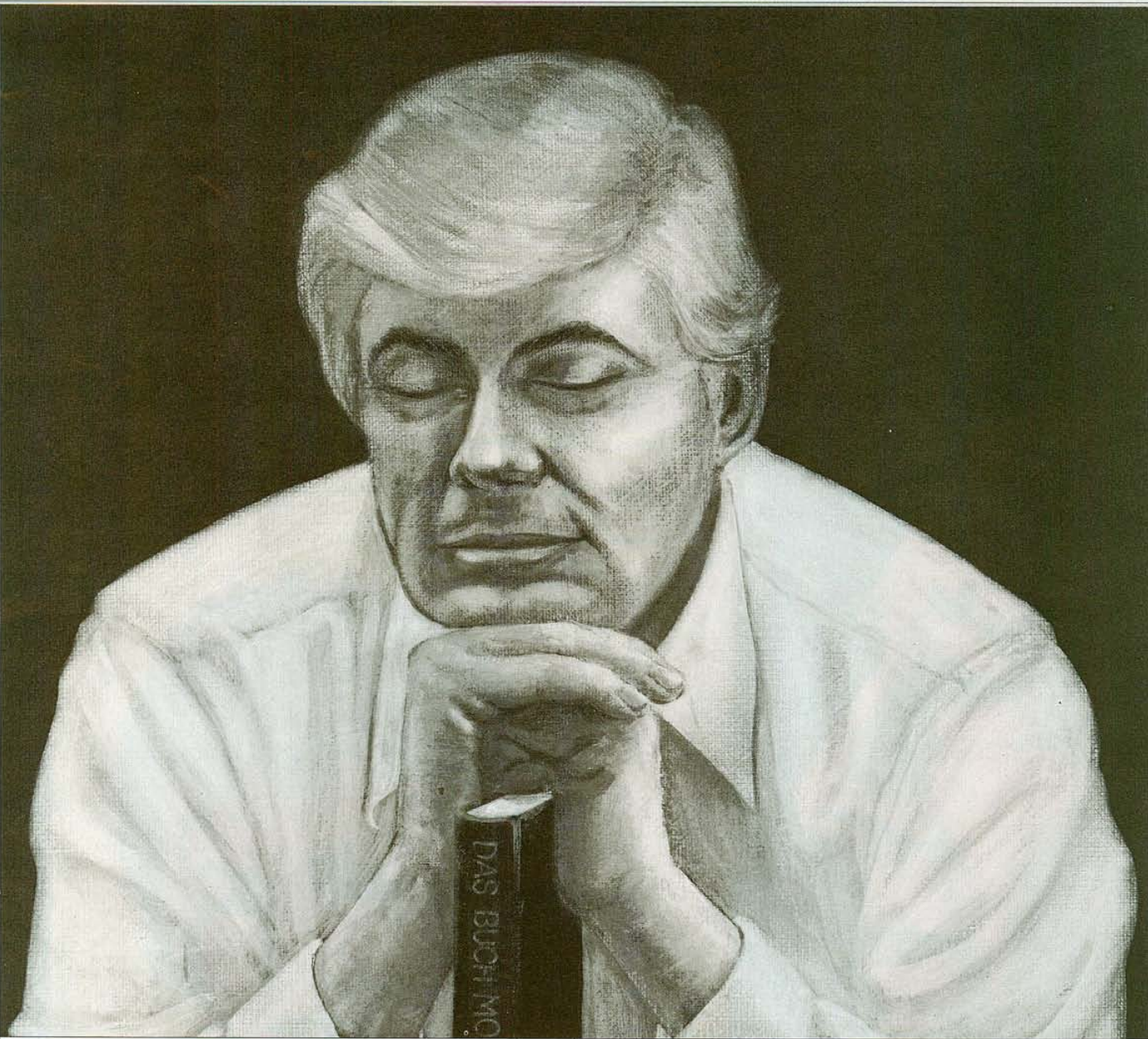
말했다.

나는 그들이 측은했다. 그들이 너무나 현혹되어 있다고 느껴졌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회의 교리에 과오가 있듯이 당신의 교회에도 과오가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바꾸거나 없앴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분의 권능에 의하여 조직되었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간증했다.

그 직후 어머니에게 그 선교사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미소짓고 침실로 들어가서 몰몬경을 한권 갖고 돌아왔다. 어머니는 내가 그 책을 가져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호기심으로 그러나 부정적인 태도로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첫 페이지를 읽으면서 화가 나서 이 책은 성경을 잘 알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했다. 나는 두 페이지를 더 읽은 다음 책을 팡 덮고는 탁자 위로 던지면서 “순가짜다.”라고 외쳤다. 다음에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나는 몰몬경이 허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책이 미대륙에 대하여 말하는 것 이외에는 성경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 방문할 때 우리 부부가 갖고 있던 질문에 쉽게 대답했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에서 전혀 잘못된 것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몰몬경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은 만일 내가 모로나이의 훈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구한다면,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증언했다. (모로나이 10:4 참조) 나는 기도하고 모로나이의 말씀을 읽는 동안 결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증거를 받았다. 몰몬경과 그 교회가 참되다는 인식이 나의 육신과 영혼 구석 구석까지 침투해 들었다. 나는 기뻐하며 아내에게 “여보, 여보, 나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라고 외쳤다.



아내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간증을 구했으며, 몇 주 이내에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침례일을 정했다.

우리가 침례받는 날, 막 침례탕의 물로 내려가려는 순간, 사탄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가능하리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것이었다. 나는 달아나고 탈출하고 싶었다. 한 동안 숨이 막혔으며 심장도 곧 멈출 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굴복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으나 만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부인한다면, 결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모든 힘을 다 하여 그 악한 영향력에 맞서 싸웠으며 그 악한 영향력은 급히 왔던 것만큼이나 급하게 나에게서 떠났다. 나는 내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고 차분한 확신과 가슴 속에 행복한 느낌을 안고 물로 들어갔다.

머칠 후 함께 앉아있을 때 아내가 “여보, 아직도 내 꿈이

기억나세요?”라고 물었다.

나는 의아해서 “무슨 꿈?”하고 물었다.

“우리를 방문한 두 젊은이에 관한 꿈 말이예요. 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교회에 가입했던거요, 기억나세요?”

잊었던 꿈에 대한 추억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는 기뻐하며 그 꿈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계시였으며 그 추억은 우리의 간증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실현된 꿈이었다. □

요한 슈나이더는 지금 독일 만하임 스테이크, 트라이어 지부의 지부장이다. 이 글은 그가 성도의 빛 구라파 언어판 편집부에서 후원한 1986년 구라파 예술 콘테스트에서 입선한 것이다.



성신 : 내 옆에 살아 임재하심

롤라 비 윌터즈

어느 날 밤 내가 절망적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 속에 잠 못 이루고 누워있는 동안, 구세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혜사 없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한복음에 있는 어떤 성구가 생각났다. 나는 불을 켜고 성경에 손을 뻗쳐 14장을 폈다. 26절 끝에 이르렀을 때 잠시 멈춘 다음 그 구절을 다시 읽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내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의 남편 글렌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증세에 빠져있었는데 이 병에 대해서는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알츠하이머병은 중앙 신경 계통에 영향을 미쳐 몇 개월 내지 몇 년 기간에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감소시킨다.

남편은 병나기 전에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남편은 생각을 해야 하는 활동은 모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교회 부름을 포기하고 책읽기도 그만 두고 그가 좋아했던 것들을 행하는 것을 그만 두고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까지도 그만 두었다. 마침내 그는 밖에서 산책하다 길을 잃기까지 했으며 더 이상 어떤 곳에도 혼자서는 갈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은 할 일이 없게 되자 초조해졌으며 나에게 무슨 일을 그와 함께 하거나 남편을 어디로 데려다 주기로 끊임없이 나에게 의지했다. 나는 나의 모든 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냈다.

남편을 돌보는 문제가 계속 증가되었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돌보기 어렵게 될 때가 흔히 있다. 남편은 나의 도움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남편은 말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남편과 이성적으로 행동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우리의 나날은 씻기고 옷입히고 면도하도록 하는 기나긴 싸움의 연속이 되었다. 나의 감정은 무력한 남편에 대한 짜증...심지어는 분노...와 깊은 동정심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접 그를 보살피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돌보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으며, 내가 지상의 어떤 근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 성구를 읽을 때까지는 어떻게 남편을 도울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 이전에는 성신을 교사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늘 남편을 돌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했으나 그때까지는 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었다. 이제 한 성구가 나의 한정된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보여준 것이다. 나는 비슷한 상황에서 병자나 노인을 끊임없이 돌보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느꼈다. 나는 그들이 단지 칭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도움에 대하여 알게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나는 구세주의 사랑에 찬 말씀을 읽도록 인도받은 그 잠 못 이루는 밤 이래로 도움을 주시도록 주님을 향해 간구했으며, 성신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남편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내 옆에 임재하시는 것 같았다. 이제 남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찢먹이처럼 행동하지만 나는 평화롭다. 내 마음은 현재 상황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며 또한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나는 성신이 나를 위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안다. 나의 생애는 의미가 있다. 나는 주님의 무력한 한 자녀를 돌봄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있다. □

성 신 의

한스 코르

1976년 3월 나는 아내와
우리 두 아이와 함께
짐례받았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고 느끼면서 대단히
행복했다. 그해 여름 우리는 휴가에
놀웨이의 가장 경치좋은 지역의 하나인
호튼하이만에 있는 통나무집을 하나
빌렸다.

우리 가족과 나는 놀웨이의 가장 높은
산에 둘러싸인 작은 오두막에서 함께
멋있는 생활을 했다. 비록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거의 삼십오리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나, 결코
외롭게 느낀 적이 없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느꼈다. 그해 여름
우리는 한 가지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그의
자녀에 대하여 갖고 계신 큰 사랑에
대한 감사와 겸손으로 몸이 떨린다.

어느 구름 한점 없는 아름다운 아침
일찍 우리는 먼 길을 하이킹하러
출발했다. 우리는 깊은 계곡과 눈덮인
산꼭대기가 푸른 산의 호수에 비추이는
것을 보았다. 그 하이킹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위험했으나
우리는 그 한적함과 장엄한 경치를
즐겼다. 우리의 목적지까지 약 십리



속삭임

정도 남았을 때 베슬레프펠트라는 산으로 가기 위하여 베세겐이라는 협준하고 좁은 산등성이를 넘어야 했다. 나는 우리가 그곳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작고 고요한 어떤 음성이 속에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침례받으지 불과 넉 달밖에 안 되었으며 아직 성령의 속삭임에는 익숙해 있지 않았으므로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가 그 산으로 더 가까이 갔을 때 다시 그 음성이 나를 경고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멈춰서서 지도를 조사했다. 만일 우리가 베세겐과 베슬레프펠트를 기어올라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면 산과 호수를 하나 돌아서 걸어야 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하면 한밤중까지 걸어야 우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가 다리도 지치고 식량 가량이 빈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가고 있던 길로 계속해서 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우리가 그 산기슭에 도달했을 때 그 작은 음성이 분명하게 “한스, 저 산을 넘어가면 안돼.”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다시 우리는 멈춰서서 좁은 산등성을 올려다 보았다. 태양이 빛나고 대기는 고요했으므로, 나는 여전히 그 경고에 귀기울여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앞서고 아내가 제일 뒤에 서고 두 아이는 안전하게 가운데에서 따라오게 했다. 우리는 기어 오르면서 약간 어려움을 느꼈으나, 나는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중간쯤 가서 우리는 경치를 보고 감탄하며 멈췄다. 우리 왼쪽에는 약 150 미터의 험준한 벼랑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약 500미터의 산비탈이 불쭙 나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그 정적과 훌륭한 경치에 감탄하고 있었으나 나는 계속해서 불안을 느꼈다. 갑자기 나는 북쪽으로부터 한 줄기 돌풍을 느꼈으며 점점 더 커지는 소리가 쳐들어 오는 것을 느꼈다. 몇분 안되어 우리는 오르릉거리는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가족에게 엎드려서 꼭 잡으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각자 필사적으로 그 산에 꼭 매달려서 우리 손가락을 땅에 박으려고 애썼으나 바람이 너무나 심해서 우리는 서서히 벼랑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한 것을 깨달았다. 성전의 고요한 속삭임에 대한 선교사들의 말이 기억났으며 지난 반 시간 동안 세 번 성신을 무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주님이 아내와 아이들을 구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나는 회한에 젖어 용서해 주시기를 울부짖었다.

그때 오르릉거리는 폭풍을 뚫고 마음속으로부터 산언덕으로 도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깊고 강력한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면전에서 쫓겨나리라고 경고했다.

갑자기 그 폭풍이 멈추고 고요한 정적이 깃들었다. 나는 감격해서 털썩 무릎을 꿇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았다. 아내와 아이들은 우리가 산꼭대기로 기어올라 수 있도록 나에게 빨리 올라가자고 외쳤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즉시 내려가야 한다고 명했다. 식구들은 이유도 모르면서 순종했다. 우리가 산기슭에 닿았을 때, 다시 바람이 불려오는 소리를 들었으며 일순간에 그 폭풍은 아까보다 더 강하게 불고 있었다. 나는 가족에게 그 산등성이에서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무릎꿇고 주님에게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렸다.

십 년도 더 지난 오늘날까지도 나는 이 경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때마다 큰 감회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다. 그 여름 날 놀케이의 산허리에 매달려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성신의 속삭임에 귀기울이는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

한스 코르는 덴마크 아러스 스테이크의 프레드릭시아 워드 감독이다. 이 기사는 성도의 빛 구라파 언어판 편집부에서 후원한 1986년 구라파 예술 콘테스트의 개인적인 경험 부문에서 수상한 글이다.

자살 :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언자들은 자살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왔으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은 어떤 노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의 부인은 그보다 몇 년 전에 죽었으며 그는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자 점점 더 살 이유가 적게 느껴졌습니다. 차츰 그는 자신이 집의 사면 벽에 갇혀 있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반신불수로서 친구를 방문하거나 가게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일용할 식품은 그의 문앞까지 배달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는 것이 그리웠고 신권 정원회의 다른 회원들과 정규적으로 우정 증진하는 것도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나다닐 수 없었으나 의사는 그가 한참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사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하시고 오랫동안 몸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집에서 휠체어에만 앉아 계시야 한다는 사실을 빼고는 아주 건강하시다는 것을 장담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사는 격려해 주려고 애쓰고 있었으나, 이 노인은 낙심했습니다. 이 착한 형제는 자신의 지상 생활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꼈으며,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 수록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선교 사업을 했으며 평생에 여러 번 여러 가지 지도자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 얻게 될 해방에 대하여 생각하면 그의 마음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장례식이 끝난 후 그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저지른 행위로 마음속으로 크게 안정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비탄과 분노와 죄의식이 착잡하게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낙담이 되셨는지 알아야 할 걸 그랬어요. 알았다면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한 아들은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에 대하여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결코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뇌와 불확실성

막내 아들의 말은 그들이 모두 느꼈던 절망감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질문이라기보다는 단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행하신 모든 선행은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상 이제 아버지는 영원히 별의 왕국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이 표현한 느낌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의 자살을 보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말일성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고뇌와 불확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슬픈 현상이나, 그 문제는 많은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행히도 그 문제는 비회원뿐 아니라 교회 회원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자기 목숨을 끊는 이 단 한 가지 행동은 너무나 많은 피해자를 남겨두기 때문에 정말로 비극입니다. 우선 죽는 사람 자신이 피해자이며 그 다음에는 뒤에 남은 가족과 친구 및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로서 그중 일부는 여러 해 동안 깊은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살아있는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며 필사적인 갈등을 겪을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 죽은 가족의 피해자들이 느끼는 슬픔, 분노, 죄의식, 배신감 이외에도 말일성도는 또 다른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멸의 생활의 목적은 자신을 입증해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해의 왕국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별의 왕국에 맡김으로써,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살에 관한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언자들은 어떻게 말해 왔습니까?

예언자들은 자살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왔으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예언자들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째로 대관장단의 조지 큐 캐논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자살의 심각성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자기 영에게 인간의 거주 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을, 즉 육신과 영을 모두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것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살인죄가 있다. 자신을 살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죽이는 것이 타인을 죽이는 것보다 더 정당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누구든 생명이라는 고귀한 은사를 파괴하고 또 심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복음 진리, 제2권, 솔트레이크시티 : 자이온즈 북스토어, 제2권, 1957년, 1:30)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도 1976년에 똑같이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나가서 자살하여 스스로 목숨을 단축시키는 것은 끔찍한 범죄 행위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2년, 187페이지)

이런 말씀만 보면 희망의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말씀이 자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마지막 운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고 브르스 알 맥퉁키 장로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살은 자발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며 특히 그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고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에 한한다. ...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제력을 잃고 정신적으로 불만을 느껴 더 이상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하여 정죄받게 되어 있지 않다. 또 심판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인간의 생각과 의도와 능력을 아신다. 그리고 무한하신 지혜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으실 것이다. (폴론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6년, 771페이지)

주님만이 모든 사실을 아심

얼마 전 나는 자살한 어떤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그 문제에 관한 교리를 연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만이 공정한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야 마음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며, 그분만이 내 친구의 마음 속의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의 일생을 판단하실 때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베푼 선행과 봉사들 들림없이 고려하시리라는 생각을 하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마도 엘마의 다음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에 있어 회복의 법은 불가결한 것이니, 만물이 합당한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함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라. 보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의 영이 육과 결합되며, 몸의 모든 부분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며 필요한 일이다.

“또한 인간이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 하심으로 보아 합당한 일이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으로 선을 따르며 선행을 하였으면, 마지막 날에 선으로 회복될 것이요.”(엘마서 41 : 2-3)

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살인하는 사람은 모두 정죄받으리라는 의미입니까? 나는 주님께서는 의도와 상황의 차이를 인정하신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이 있었습니까? 그가 너무나 깊이 상심해서 균형을 잃었거나 혹은 그밖에 정신적으로 혼란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 자살이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당한 도움을 비극적이고 가련하게 요청한 것이었거나, 그 희생자가 의도한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된 것이었습니까?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행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의 육체 내부에 절망이나 자제력의 상실로 유도한 화학적인 불균형으로 그가 괴로움을 당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모든 자살의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만이 그 모든 세부적인 것을 알고 계시며, 지상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를 심판하실 분은 바로 그 분이십니다.

주께서 실제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유전적, 화학적 구성,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 우리 조상의 관습, 우리의 건강, 기타 모든 것을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 곧 무지한 죄를 지은 자”의 죄를 대속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사이야서 3 : 11).

그러므로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이, 알콜 중독자가 된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알고 또 이해하면서 알콜 중독으로 이끄는 과정을 선택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김블 대관장의 용서가 낳는 기적은 자살을 범하는 사람의 책임성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 친구가 다락의 서까래에 목을 매고 자살한 것이 부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다. 그는 근 2년 동안 침울해 있었고 낙심해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행복하고 명량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 분명히 그는 순간적으로 자살을 범하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좌절감을 갖고 지냈으며 처음에는 자제할 수도 있었으나 막판에 가까이 갔을 때는 헤어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올바른(의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나 특히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몸을 던져서는 안된다.”(용서가 낳는 기적, 102페이지)

“행한 행위에 따라”

고맙게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인간들이 서로 부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반면에, 우주의 대부모이신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듯이 온 인류를 돌보십니다.

그 분은 현명하신 율법자이시니 인간의 제한된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육신으로 선 혹은 악을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여호와와 지혜와 예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그들의 공과와, 그들이 예지를 받은 방법과, 그들이 다스림을 받는 율법과,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지고, 미래의 장막이 견혀질 때, 우리는 온 땅의 재판장이 올바르게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14페이지)

예언자의 이 말씀으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끌어 내겠습니다. 자살은 죄이며 매우 중대한 죄이지만 주님께서는 엄격하게 행위 그 자체만 보고 그 죄인을 심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런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물론 이런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스스로 변명할 구실도 되지 못하며 또 주님도 우리의 변명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성장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온다는 것과 필멸의 생뿐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따라 계속해서 진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몇 가지 개인적인 견해

나는 최근에 자살한 사람의 가족의 몇 가지 경험을 들었는데

그 경험은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교회 회원의 개인적인 영적 경험이 교회 교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은 현재까지 우리가 토의해 온 개념과 양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경험은 어떤 젊은 여성에 관한 것인데, 그녀가 다섯 살 때 부친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며 이 딸도 어려해가 지날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츰 나이가 들면서 나의 부친께서는 무엇인가 내가 그를 위해서 해줄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부친이 자신을 죽였으므로 지옥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부친이 자살한 것은 나쁘지만 그는 가족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부친은 알콜 중독자로서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부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나는 부친이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았으며,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그를 위하여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찾아보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라는 대답이 오곤 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죽은 자의 침례에 관하여 처음 들었을 때 감격했습니다. 이때서야 부친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필요한 작업을 하고 그의 이름을 아이다홀폴즈 성전으로 보냈으며 그곳에서 어떤 형제가 우리 부친을 위하여 대리로 침례받는 것을 참관할 특권을 누렸습니다. 같은 달 그를 위한 엔다우먼트 사업도 행하여졌습니다. 나는 부친이 이 두 가지 의식을 받아 들였으며 그것에 의하여 크게 축복받았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이 경험은 오랜 병고를 겪은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친이 있었던 교회 회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의학에 의한 최근의 발견에 대한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향상된 의학 지식

“나는 1977년 그날 아침 집으로 전화했을 때 어떤 경찰관이 전화를 받고 부친이 자살했다고 말했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친은 상냥하고 친절한 분이로써 결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몸에 무언가 이상이 생겨 중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에 나 자신도 육체적으로 무서운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그 경험으로 인하여 부친이 죽기 전 몇 주 동안의 정신 상태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갑상선 과대 활동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의 육신은 부친이 겪었던 증상과 같은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녀달이나되는 기간을 잠을 못자며 보냈습니다. 수면제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잠이들더라도 곧 밤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그 증상 가운데 많은 부분은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공포에 떨었고 깊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열여덟달 동안 치료받았으며 마침내 그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고 살아남게 됨으로써 부친의 죽음을 좀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조사한 결과 1979년 이전까지는 갑상선 과대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별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병은 유전될 수 있으며 내가 그런 경험을 한 후 나의 아버지 쪽의 사촌 가운데 두 사람에게서 또 그 병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또한 어느 의사가 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약품을 잘못 사용하여 정신 병원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어쩌면 부친도 이와 똑같은 병에 걸렸을지 모릅니다. 내가 조사해 본 모든 사실에 입각하여 부친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부친의 죽음을 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그렇게 잘 돌보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쇠약해져서 그렇게 빨리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그에게 어떤 발견되지 않은 질병이 있었다고 믿게 됩니다.

“부친은 온 마음을 다 하여 주님을 믿었으며 강하고 굳은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망쳐 버렸을지 모르지만 그가 오십년 동안 훌륭하게 살아온 생애를 망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살피 주시며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화평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마지막 경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뒤에 남은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화평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상실감

“어머니는 자살할 당시 지상의 동반자를 잃고 건강이 나빴으며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읍니다. 어머니는 우리 숙모에게 우리 아버지를 잃은 것이나 건강상의 어려움 중 하나는 감당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다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죽기 이틀 전의 일이었읍니다. 나는 아버지가 교통 사고로 죽은 후 곧 어머니가 자살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몹시 걱정이 되어 그 가능성에 대하여 의사와 의논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읍니다. 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이 모든 사례를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며 각 사람의 환경을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했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다른 어떤 것까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의 왕국에서 거할 장소가 있으며 그곳은 암흑이나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위안받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특별한 영적 경험을 측정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승영의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도록 의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매우 중대한 죄를 지었으며, 그 죄의 일부 결과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남아 있을 수도 있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 대한 우리 마음 속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희망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 긴 일생이 끝날 때가 다 되어갈 무렵 이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었읍니다. 그는 죽은 자들 사이에서 구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시현으로 보고 이렇게 적었읍니다.

“나는 현세를 떠나는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이 회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죽은 자의 영들이 거하는 광대한 세계에서 어둠 가운데 죄로 속박되어 있는 영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회개하는 죽은 자의 영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의식에 따름으로써 구속받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범법에 대한 형벌을 받고 깨끗해진 후에 그들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됨이니라.”(교성 138 : 57~59)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 계획은 너무나 공평한 계획이며 위대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겪은 사람들의 염려와 고뇌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필멸의 상태에 남아 있는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약속과 축복에서 깊은 위안을 받고 또 믿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 : 27)□

후퍼 자매

세릴 앨런

에 디스 후퍼 자매에 대하여 첫인상을 받은 것은 주름진 얼굴을 감싸고 있는 백발 머리였다. 그의 큰 눈은 마치 사람들이 더 깊은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눈동자 뒤에 흰 스크린을 쳐둔 것 같았다.

후퍼 자매는 나이많은 과부로서 최근에 교회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그녀를 방문한 것이 나로서는 맨 처음 방문 교육이었다. 그 달에 정규 방문 교육 동반자가 몸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 방문 교사와 함께 가도록 부탁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는 후퍼 자매의 집에 들어서자 재미있는 조개 껍질을 많이 수집한 몇 개의 유리 상자를 보게 되었다. 후퍼 자매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묻자 눈에 띄게 표정이 밝아졌다. 그러나 그 자매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으며 우리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다. 또 그녀가 아직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의

나는 이 여인이 평생에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방문이 소용이 있을지 혹시 있다면 어느 정도 소용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떠났다. 나는 이 여인이 나의 생애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것인지 전혀 알 리가 없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팔년 후의 일이었다. 나는 그녀의 방문 교사로 지명받을 때까지 그녀에 관하여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녀의 가정을 처음 방문했을 때 아직도 끔찍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곧 그녀가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않으며 밖에도 별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가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는 두 이웃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했으나 다른 방문객은 거의 없었다. 그녀의 중요한 동반자는 그녀의 개 신디였다.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나와 동반자 버지니아 라벤더는 그녀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토론했다. 우리는 후퍼 자매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다. 또 그때가 성탄절 직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에게 조그만 선물도 했다.

식사가 끝난 후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에디스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해 줍니까? 이렇게 해준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을 못했다. 그 점심 식사는 그 이후의 많은 점심 식사 약속의 시발점이 되었다.

우리는 매달 방문하면서 에디스가 세계 소식과 지역 사회 소식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야구팀까지 있었다. 그 할머니는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는 정보는 독서를 통해서 얻었다. 그러나 이따금 말하는 것이 느린 것 같았으며 반응도 좀 둔했다. 우리는 방문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곤 했다.

그녀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가지는 계보였다. 후퍼 자매는 편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정보를 많이 모아 두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그 내용을 타자하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주일학교 계보반에 참석하면 도움이 되리라는 결론을 얻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에디스에게 전화해서 기억을 상기시키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집으로 찾아갔다.

그렇게 일요일에 함께 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잘 알게 되었다. 나는 에디스의 모친은 그녀가 두 살 때 세상을 떠났으며 그때로부터 십일년간 수녀원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았다. 부친은 재혼했으며 에디스가 열세 살 때 함께 살며 집안 일을 하도록 수녀원 기숙사로부터 집으로 데려왔다. 계모는 그녀가 맡은 집안일을 끝내야 방에서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에디스는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그 후 남편이 될 길버트를 만났다. 길버트는 해군 직업 군인으로서 가능할 때는 에디스와 함께 여행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조개를 찾기 위해서 잠수한 곳은 캄도와 필리핀이었다. 수집한 조개 껍질은 하나 하나 그 기원과 종류와 채집 장소와 깊이를 모두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잠수하곤 했다.

에디스는 시댁 가족을 자신이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친정 가족인 듯이 사랑했으며, 우리가 함께 계보 사업을 하는 동안 그녀의 부친과 남편(몇 년 전에 죽음)또 시댁 가족 여러 사람의 침례와 성전 의식을 행하기 위한 준비를 끝낼 수 있게 되었을 때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에디스는 그녀의 생모의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결코 충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다.

어느 날 에디스의 이웃으로부터 에디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이웃 사람은 에디스를 그곳 병원의 응급실로 옮겼으며 곧 회복실로 옮겼다. 에디스는 그 후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나는 그녀를 가서 만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몇 가지 갖다 주었으며, 그렇게 계속 돌보는 가운데 그녀의 경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우리 와드의 몇몇 자매들은 그녀가 모르게 그녀의 집을 완전히 대청소도 하고 부엌에 다시 페인트를 칠해 주었다. 그녀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자, 자매들이 매일 번갈아가며 그녀를 돌보고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알려주는 당번을 정했다.

에디스는 스스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는 때가
많았으나, 그녀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곤 할 때가 있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올바르게 식사하지 않고 있었으며 쇠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녀의 식사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공공 자선 기관에서 매일 배급해 주는 식사로 균형잡힌 식단이 되도록 조치했다. 우리는 또 그녀가 담배피우는 문제에 대하여 토의했다. 에디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 알았지만 담배를 피우든 안피우든 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에디스는 건강이 악화되고 점점 더 쇠약해짐에 따라 자주 좌절과 당혹감에 못이겨 울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여윈 어깨를 감싸 주고 나의 사랑과 관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아마 남편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서도 인정받거나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은 점차적으로 나의 포용과 우정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다시 에디스의 이웃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곳에 도착해서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을 알고는 의사에게 연락했다. 의사가 즉시 와서 폐렴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며 우리는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에디스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매일 방문했다.

에디스는 경비를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 집을 세놓는데 동의했다. 나는 그녀의 수표를 대신해서 작성하는 일을 맡기 시작했으며 그러면 그녀가 그 수표에 서명하여 여러가지 비용을 지불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명받았다.

에디스는 수집한 조개 껍질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해서 갖는다는 것을 양해 사항으로 하고 그녀가 아끼던 조개 껍질 수집품을 시카고 주립 대학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학에서 온 두 사람과 함께 나의 남편과 나는 여러 시간 동안 그 조개 껍질이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어느 날 내가 병실에 들어가자 에디스는 이렇게 물었다. “내 은행 계정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지요? 내 조개 껍질은 어떻게 되었지요?”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자 에디스는 이렇게 감사로

표시했다. “나는 자매님이 그 일을 모두 다 처리해 줄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내가 방문할 때 에디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할 수 없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사랑에 찬 눈길로 나를 보면서 내가 그녀를 위해서 그렇게 너무 많이 해주면 안된다고 나무라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어쩌면 제가 자매님이 한번도 가져 본 적이 없는 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곤 했다.

어느 토요일 폐렴이 악화되어 에디스는 중태에 빠졌으며 내 말에 대답도 못했다. 그 다음 날 나의 남편이 그녀를 방문했으며 그녀가 그를 알아 보았다고 했고 그 다음 날 함께 가보자고 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전에 여러 번 했던 대로 에디스의 팔을 잡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인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자매에게 아주 잘 대답한다고 말하고 그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덧붙여서 “제가 자매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요?”라고 말했다. 그 자매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이 생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에디스는 숨을 거두었다.

우리가 합의한 대로 내가 그녀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장례식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의 가족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이 상냥한 부인이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만약에 팔년 전에 누가 나에게 이 폐쇄적이고 고집스런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면 아마 나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매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내 생애에 감동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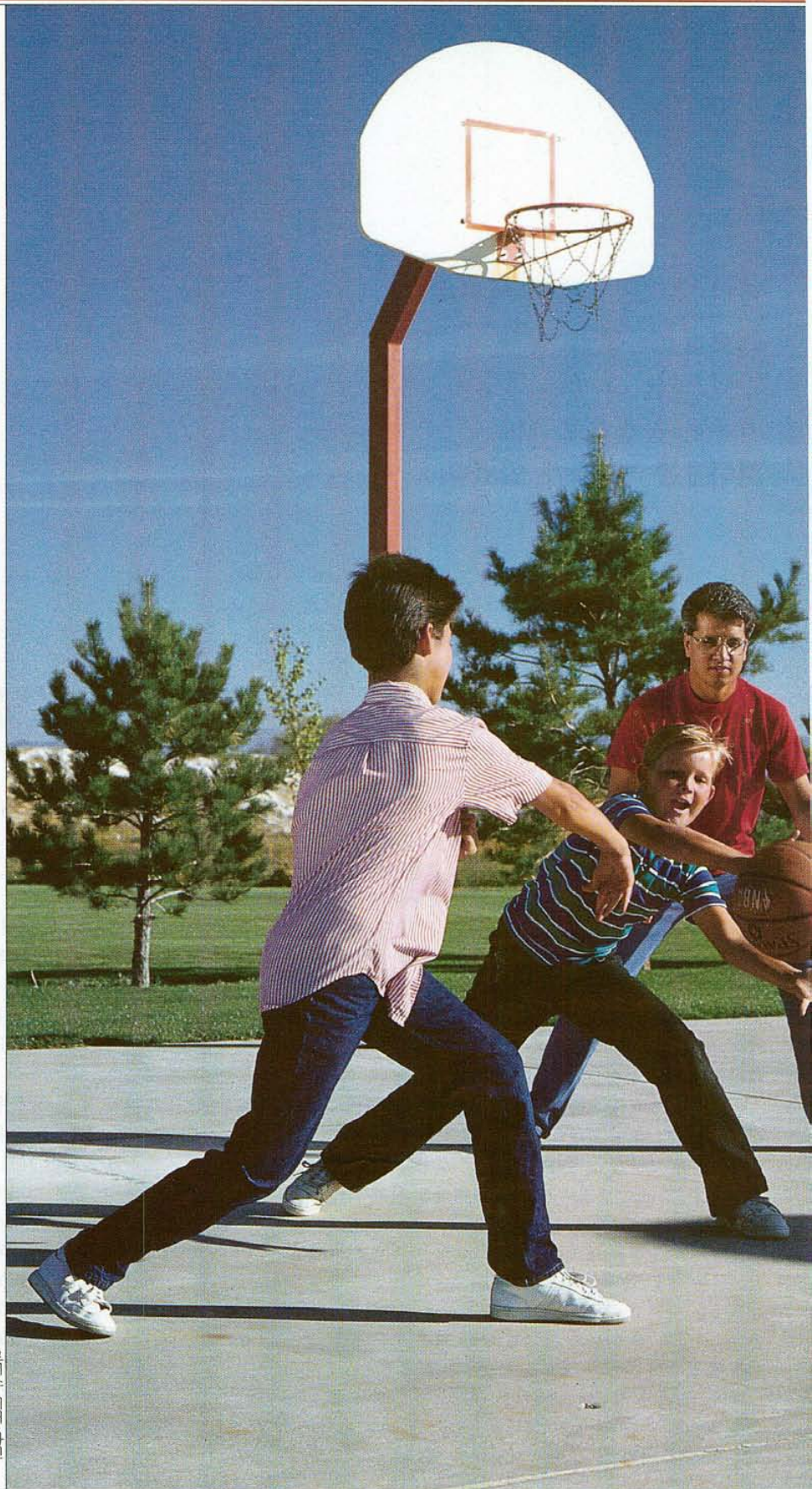
나는 에디스에게 그녀의 엔다우먼트 의식을 다 끝내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약속을 이행했다. 하나의 장이 완성된 것이다. □

자녀에게 친구와 우정에 대하여 가르침

십 대 자녀와 부모에게 있어서 친구에 대한 평가는 항상 화합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흔히 친구의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나 태도 및 그들의 잠재적인 악영향 등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들의 생애에서 중요한 시기에 자녀와 부모가 화합될 수 있다. 어떤 가족은 이런 방식으로 했다.

“우리는 자녀 가운데 누가 품행이나 태도, 의상, 습관 등이 마음에 걸리는 친구가 생기면, 그것을 가족 문제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친구는 우리



로이스 베어 사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향이 양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우리 가족의 영향은 친구들이 우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못지 않게 클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험한 말씨를 쓰는 친구를 자주 만나지 않도록 말하거나 딸 아이가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는 것보다 더 일찍 데이트를 시작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기보다는 서로 어울리게 했으나,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면에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그런 친구를 자주 초대해서 한 가족처럼 여러 가지 것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편해 하거나 당황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다. 또 우리는 그들을 요모 조모 뜯어가며 살펴 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다. 우리는 단지 만일 그들을 환영받게 해주면, 그들도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좋아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행하는 방식을 좋아한다면, 그들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택할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우리의 방식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보상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습다.

“이와 같이 우정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는 아직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환영받거나 우리 자녀들 말에 의하면 ‘입양된’ 우리 아이들의 젊은 친구는 모두 다 우리 자녀의 합당한 친구임이 입증되었으며, 대부분이 가깝고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 방식이 너무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면, 아마 이

방식이 계명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약속된 ‘지식의 감추인 보화’의 하나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 시작함

이상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모두 어린 자녀의 친구와 그들의 활동을 알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의 활동이 모두 의미가 없고 단지 “심심풀이의 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들이 걸로 꾸미고, 옷을 대거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 때라도, 그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부모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들이 우정을 나눔으로 “주고 받는 것”에 대하여 배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부모가 차분하게 이해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놀이 친구 사이의 의견 차이는 드문 것이 아니며 부모들이 그로 인하여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과 어울릴 능력이 없다는 성급한 결론으로 끌고 가면 안된다. 자녀들은 모두 의견 차이가 있으며 심하면 다툼기도 한다. (사실상 여기서 부모는 용서에 관하여 자녀들에게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즉시 서로 용서하여 심지어는 화를 내며 다툼 후에도 계속해서 논다.

때로는, 자녀가 서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최고의 추리력을 동원해야 할 때가 있다. 그뿐 아니라, 자녀는 싸우지 않고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것을 배우는 가운데 서로 적절하게 다른 사람과 친분을 맺는 것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배운다.

어린이는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처럼 타인 감각 즉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의 필요 사항과 똑같은 필요 사항이 있다는 감각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부모의 모범이 절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발견하고 이해하면 어린이에게 새로운 종류의 기쁨 즉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배우는 기쁨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우정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수많은 다른 미덕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지나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아내는 것은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것이며 여러 해의 훈련이 필요하다. 자녀들은 건전한 자부심을 쌓아야 하며, 이것은 자기 의견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친구가 자기 자신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게 해준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누구와 함께 놀고 또 누구와 함께 놀지 않을지 하는 것을 좀더 의도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한다. 때로는 이런 선택이 건전한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기도 하지만 매우 피상적인 관찰에 근거를 두기도 한다.

우리의 사회는 외형의 사회이다.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은 가능한 최상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서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 평가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는 좋은 상표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들은 인기있는 무리에 속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어린이는 단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인가로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가정 내에서의 우정

자녀들이 처음으로 우정을 쌓게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이다. 진실로 우리 자녀가 가족 밖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필사적으로 원하게 되지 않도록, 형제간에 또 우리 부모와 친구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정은 또 가족 단위를 함께 묶어 주며,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과 우정에는 어떤 좋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 어떤 것이 포함되면 안되는가를 가르칠 수 있게 해준다.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신뢰와 존경과 사랑의 상태를 창조해냄으로써 우리 자녀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그들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 자녀의 친구들에게도 그 문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끌게 될 것이다. 자녀의 친구들이 우리 가정을 즐겁게 올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표준을 그대로 채택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존경은 하게 될 것이다.

십대와 그들의 친구들을 이해함

자녀는 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된다.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만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가에 더욱 염려를 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점차 그들 자신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들이 다른 곳에서 같이 있을 사람을 찾게 하는 원인이 되는 가정의 긴장에 의하여 이 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재촉하게 될 수도 있다.

가정이 너무 엄격하거나 반대로 방임하는 경우 욕구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부모가 너무 억압하면 자녀는 아무 간섭없이 결정하게 하는 친구를 찾게 될 수도 있다. 반면에 부모가 너무 방임하면 의지할 친구를 찾게 된다.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녀는 혹시 방향이 그릇될지라도 자신의 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 동료를 찾을 수도 있다.

부모는 그런 극단적인 태도로 인하여, 자녀가 친구 및 환경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십대를 키우는 것은 손에 새를 잡고 있는 것과 같다. 너무 꽉 쥐면 으스러질 것이다. 너무 느슨하게 쥐면 날아가 버릴 것이다.

십대가 적절한 우정을 맺도록 인도함

부모가 십대 자녀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채택함으로써 통제와 자유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취할 수 있다. 첫째 원리는 일관성으로서,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규칙을 깨뜨릴 때 징계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것이다. 십대는 그들 생활에 일관성이 필요하다. 일관성 있게 대하면 자녀는 안정감을 쌓게 된다. 일관성을 잃게 되면 좌절을 유발하며 자녀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가정에 끊임없이 긴장이 감돌거나 대화가 잘 안되면, 자녀는 거의 언제나 다른 곳에서 친밀한 관계와 이해심을 찾게 될 것이다. 부모가 비판하지 않고 사랑과 수용의 분위기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자녀가 친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염려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일단 우리가 꾸짖는 어조로 말하거나 간혹 화를 내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우정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키워 주고 또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발전시켜 줄 친구의 가치를 이해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토론할 올바른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구약성서에 나오는 우정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를 함께 읽음으로써 할 수 있다. (삼상 18~20장 참조) 물론경에서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또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모사 27:8~10 참조) 청소년이 복음 표준을 지키는 훌륭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고 또 현대의 상황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매리온 디 행스 장로는 우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게 될 친구로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일 것입니다. 친구는 우리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행복하고, 관대하고, 사려깊고,

인간성이 정직하면 그런 친구와 사귀는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분명하고 품위있는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친구가 친절하고 고상한 생각을 하는 편이라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돌이키게 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들이 건전한 습관을 갖고 있고 감성적이라면, 우리도 영향을 받아 그러한 습관을 길들이게 됩니다. 그들이 건전하고 건설적인 일을 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 그와 같이 하게 됩니다.”(상호부초회 1981~82년도 교재, 118페이지)

우리 자녀가 어떤 친구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친구를 선택하는가에 의하여 흔히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올 때 자녀들은 지켜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 자녀를 존중하며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는가? 우리 친구들은 우리와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어떤 와드에서는, 한 아버지가 왜 그 와드의 청소년이 그렇게 그를 좋아하며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해답을 몰랐으나 그의 부인이 대신 대답했다. “그는 항상 자녀의 친구들의 이름을 묻고 기억합니다. 그는 그 아이들을 다시 보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농담하고 그들의 가족과 생활에 대하여 묻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그가

참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의 친구들의 친구가 됨으로써 우정에 관하여 일 년 동안 강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의 자녀를 위하여 해준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진실된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실하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알 수 있다. 우리 자녀의 친구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는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다.

우정을 강화시키는 모임

어린이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들의 재능과 성품을 발달시킬 특별 활동을 추구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 활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나 그것은 건설적이어야 하며 어린이가 그것을 하고자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 활동으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를 꾸짖거나 하도록 강요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생기는 일이 없게 된다. 배우고 성취하는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쌓게 되는 우정은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가운데 속할 수 있다. 이것은 배우고 행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친분을 쌓는 것은 좀더 이차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수줍어 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안해 하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특히 더 그러하다.

교회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이유로 젊은이를 참여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키워 주기 위한 것이다. 만일 자기 자녀에게 그 지역에서 운영되지 않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 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지역 사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일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와드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그의 교사 정원회 농구 시합은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보러 갔다. 그는 그 시합 시즌 내내 그들을 응원했으며, 그 시즌이 끝날 때 그의 아버지가 교사 정원회 고문에게 자기 아들이 친구들과 좀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양 장기 시합을 고려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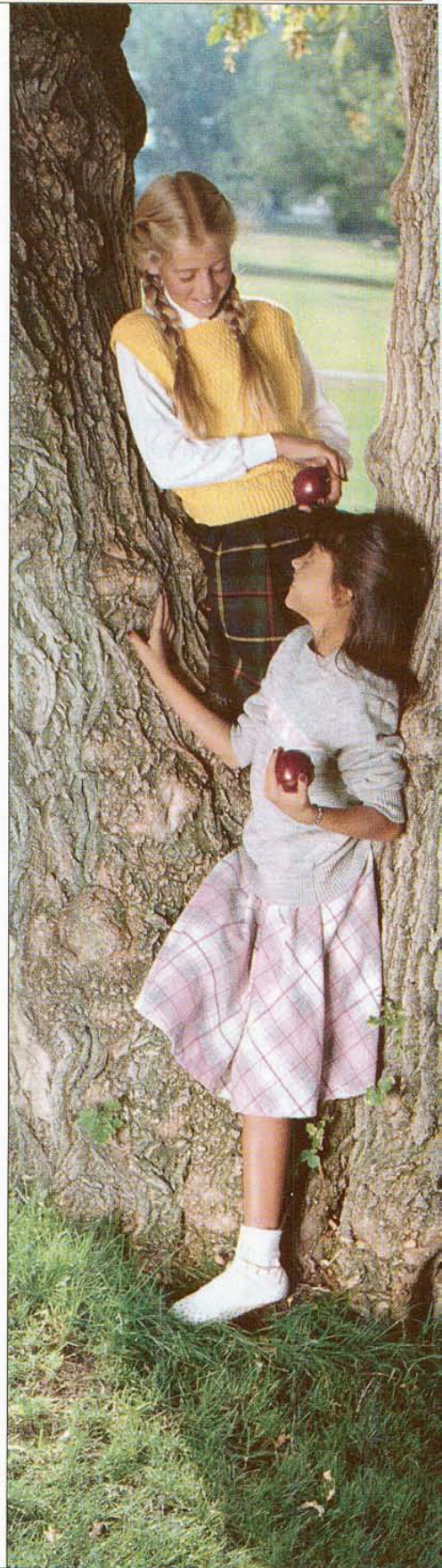
그 와드 젊은이들은 서양 장기 시합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청녀 및 모든 아른 신권 소유자가 참여하는 스테이크 장기 시합으로 발전하게 될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 시합이 없었으면 결코 만날 기회가 없었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합으로 인하여 서로 소개받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그들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복음

원리가 그들의 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자녀가 성장할 때 그들과 자주 대화함으로써 그들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의리, 신뢰, 용기, 사랑, 친절 등과 같은 기독교인다운 참된 친구의 자질을 계속해서 키워 줄 수 있다.

이런 우정의 속성을 배우는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것이며, 그들의 친구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자녀를 키우는 것은 손에 새를 잡고 있는 것과 같다. 너무 꼭 쥐면 으스러질 것이다. 너무 느슨하게 쥐면 날아가 버릴 것이다.



너무 늦을 뻔한 월요일

레이첼 월드

나는 1969년에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집회소로부터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자매들과 계속
접촉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 자매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한 시간
반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배당에서도 차를 타고 반
시간쯤 걸리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 자매는 당뇨병이
있었으며 최근에 발작이
일어나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있었다.

나는 미리 예정해 둔
월요일 휴일에 이 자매를
방문하도록 시간을 정해
두었다. 이 휴일 전날은
금식 주일이었으며 우리가
교회로부터 집으로 돌아와서
금식을 마쳤을 때, 나는
즉시 그녀를 방문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느꼈다.
남편은 내가 다음 날
방문하는 것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적절한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는 우리가
기다리면 안된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다. 마침내
남편이 “좋아요,
갑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저녁 여섯시가 막
넘었을 때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우리는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었다.
그 집은 버려진 흉가
같았다.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편지넣는 틈을 통하여 그



안소니 네더코트 그림

자매를 부른 다음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자매가
전에 “저를 만나러 오시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문을 한번 열어 보자”고
말했다.

문이 열렸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가냘픈
대답이 들렸다. 우리는 그
자매가 부엌 마루에 물이
홍건하게 고여 있는 곳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자매가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지팡이가
미끄러져 갖고 가던
물주전자를 떨어뜨린 그
마루 바닥에 넘어졌던
것이다. 일단 넘어지자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남편과 나는 그 자매를
일으켜서 침대로 사용하는
긴 의자에 데려간 다음
남편이 의사를 부르러 갔다.
의사는 그 이전부터 그
자매를 요양소로 가게
하려고 했으며, 이날 그녀를
보러 왔을 때 마침내 그
자매가 찬성했다. 그 자매는
자신의 그 사고가 하마터면
큰 재단이 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 자매는 주님이 자기를
도와 줄 사람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 금식일에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있다. 우리가
그녀를 방문하는 것을 그
다음 날로 미루었다면 너무
늦을 뻔했을 것이다. □

질의 응답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나는 가정에서의 신권
지도력의 원리에 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권 지도력이
가족 내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데니스 엘 리스고즈, 감독으로서 결혼과
지도력에 관하여 두 권의 책을 썼음.

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정하며, 어느 쪽도
배우자에게 지시하지 않는
평등한 결혼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가족에는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며,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명하셨습니다.
그는 관리 역원으로서, 가정의 밤이나
가족 평의회에서 감리하고 가족에게
기도드리고 축복하고 공과를 가르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권을 갖고 있다면 아내와 가족을
축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녀를 침례주고 확인해 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타 다른 의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관리 역원으로
지명받았다는 것은 반차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우월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내에서의 모든 중요한
생각과 결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관여해야 하며, 서로 부드럽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한쪽이 자신의
결정을 밀고 가기보다는 함께 의견이
일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며, 아무리 다급한 문제라도 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기도를 드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때로는 결혼 생활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말에 의한 혹은 신체적인
학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테이비드
오 맥케이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남성이 여성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대우를 받도록
처신하는 여성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는 남편의 속을
상해 주는 여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남성도 육체적인 힘으로
학대를 하거나 저속하게 감정을
폭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틀림없이 것처럼 잔인한
남성도 있으나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라면 그렇게 자신을 저속하게
하지는 않습니다.”(성도의 빛, 1972년

1월호, 40페이지)

교리와 성약 121편 36~37절에서는 그런 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이 권능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니, 이 또한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

주님은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으나(39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41~42절)

결혼하려는 남자는 모두 누구의 말이 “법”인가를 염려하기보다는 남자에게 이렇게 훈계하신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아내에게 독재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가정에서 이기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러한 행동을 멈추십시오. 회개하십시오.”(행복한 가정의 주춧돌, 2페이지)

남자나 여자가 다 같이 의견 차이를 해결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결정권을 고집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 모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부부가 의견 차이를 토의하고 장단점을 터놓고 숙고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의 친구 한 사람은 보다 더 낮은 문구인 “신권의 단합”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 자매는 남편 모두 서로를 지지하고 단합된 방식으로 똑같이 승화된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결혼에 있어서의 이런 종류의 평등이 그렇게 합리적이라면, 사도 바울이 쓴 그 유명한 성구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됴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됴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 5 : 22~23, 25)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사람의 겸손한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꾸준히 남을 위하여 봉사하셨으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일 남편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사랑이 많은 종이라면 그 아내의 “복종”은 권위주의적인 통제 상황하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부인은 완전한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모범을 보인 의로운 종류의 지도력에 대해서만 복종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복종이 아니며 사랑과 이성과 토의와 존경을 기초로 하는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나는 그것이 주님께서 모든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마음에 품고 계시는 관계라고 믿습니다. □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목적 : 우리의 축복과 기회에 대하여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축복과 기회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을 배움.

야 꿈의 아들 요셉은 어릴 때 언젠가는 자신에게 권력과 지위가 생기리라는 예언적인 꿈을 꾸었다. 그의 형들은 동생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뻐하기는 커녕 “시기”하였다. (창 37 : 11). 그들은 너무나 철저히 시기했기 때문에 “요셉을...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창 37 : 18~20)

요셉은 이 악한 의도를 요셉과 그의 형들의 생활에서 큰 선으로 바꾸어 놓았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갔으며 애굽에서 자기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권력층으로의 위치로 올라섰다.

그러나 몇 십 년 후 그 형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의 막내 동생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하자 그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갈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창 42 : 21)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으며 그 가족은 다시 합쳐졌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불필요하게 영혼의 고통을 겪으며 여러 해를 낭비했고 동생과 함께 기쁨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 형제들의 행동을 또 다른 요셉의 형 즉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형인 하이람의 행위와 비교해 보자. 요셉은 어린 나이에 시련을 보았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족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이람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그는 요셉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주님의 용감한 종이 되어 동생의 곁에서 봉사했으며, 결국은 카테지 감옥에서 그와 함께 죽기까지 했다. 하이람에 대하여 요셉은 이렇게 적었다. “하이람 형님, 형님은 정말 훌륭한 마음씨를 지니셨습니다. 형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염려해주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형님의 머리에 영원한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요셉 스미스의 개인적인 저술, 던 시 제시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레트 출판사, 1984년, 531페이지)

이 두 이야기는 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시기하지 말”(나이 26 : 32)라고 하셨는지 잘 나타내 준다.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시기하거나 탐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 안락한 재정 상태, 다른 사람의 재능과 능력, 다른 사람의 교회 직책, 혹은 다른 사람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시기할 수도 있다. 그런 시기심은 우리의 영육을 썩게 할 수 있다.

모로나이는 그의 부친 물몬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인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모로나이 7 : 45)라고 기록했다.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차기 위하여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모로 7 : 48)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능, 소유물, 생활 방식, 성취 등에 대하여 시기하는 것을 알게 되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도움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주님은 자비하시므로 우리에게 파괴적이고 쓸모없는 시기심을 벗어나서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한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찾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인식함으로써, 시기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모든 자녀에 대한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할 수 있다.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시기심이 어떻게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또 우리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를 토론한다.
2.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축복을 기뻐할 때, 우리 생활에서 맞볼 수 있는 기쁨을 토론한다. 방문교사나 방문받는 자매가 다른 사람의 기회나 축복을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패트리시아 티 홀랜드

일

상적인 문제가 신앙의 발전보다 더 중요하게 보일 때가 흔히 있는 것같으므로 나는 교회 자매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일상의 관심사와 책임에 관하여 그렇게 열심히 처리하며 일하는 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증가된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내적인 화평을 발전시켜 나가는가?

나는 서로 다른 네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중 두 곳은 독신 여성을 위한 조직이었고 또 두 곳은 젊은 어머니가 많이 있는 전형적인 와드였다. 독신 자매들과 함께 앉아서 상담하는 동안 그들의 고독감과 실망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아플 때가 흔히 있었다. 그들은 화평과 목적, 무언가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정말로 가치있는 것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 어머니들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은 점점 더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애쓰는 문제와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줄 시간이나 재산이나 자유를 충분히 가진 적이 한번도 없다는 데 대한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피로해 했다. 이 젊은 어머니들에 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가지 사실은 그들은 언제나 너무나 피곤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마르다에게 주신

구세주의 권고의 말씀은

내게 개인적인 계시가 되어

나의 고통에 찬 영혼에

위안이 되었다.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기타 모든 면에서 혼자서 자기 가정에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공급해야 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느 것보다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안고 있음

독신, 기혼, 이혼, 과부, 주부, 전문가 등등 여성의 모든 염려와 걱정애 대하여 귀기울여온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알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느낀다.

역사상 이십세기 후반보다 여성들의 스스로의 가치에 대하여 가혹하고도 비판적으로 의문을 표시한 시기는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많은 여성이 이전의 어느 때보다 거의 광적일 정도로 개인적인 목적 의식과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수많은 말일성도 여성도 영원한 통찰력과 의미를 찾고 있다.

만일 내가 어떤 사회를 파괴시키기를 원한다면, 우선 그 사회의 여성에 대한 대규모 공격부터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극히 분노하고 산란케 하여 언제나 여성의 고유한 특성으로 알려져 온 평온하게 하는 힘과 평정을 결코 찾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게 만들겠다.
사탄이 효율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실제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잠재 능력을
달성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오히려
초인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게
할 때가 흔히 있는 것
같다.

나 자신의
생활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기진 맥진한 상태에
도달한 적이 있었다.

나는 이년 동안 본부 청녀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그 기간은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 그 기간에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시간을 바치는 어머니가 되고 또 너무나 바쁜 남편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다 바치는 아내가 되려고 애쓴 시기였다. 또 가능한
한 최대한 본부 청녀 회장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다 바치는



보좌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 이년의 시기가 거의 끝날 무렵 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계속해서 체중이 줄고 있어 아무리 해도 체중 감소를
막을 수 없는 것 같았으며 잠도 잘 자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모든 일을 좀더 잘 관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사회를 파괴시키기를
 원했다면, 나는 그것을 여성에
 대한 대중적인 공격으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탄은 교묘하게 그렇게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하고 끊임없이 의아해
 하고 있었다.
 회장단에서 봉사한지
 만 이 년이 될 무렵
 총관리 역원이 그
 부름에서 해임되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 주일 후 남편이
 교회 업무차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나도 함께 가도록 부탁받았다.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맑고 쾌청한 어느 날, 나는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 보며 앉아
 있었다. 나는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에서, 나와 같이 “많은 일로
 근심하”는 여인인 마르다의 기사를 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그 페이지 위에 인쇄된 글자 대신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패트야,
 패트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런 다음
 “그러나…한 가지[단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순수한 개인적인 계시의 힘이 나를 사로잡았다. (눅
 10 : 38-42 참조)

이스라엘의 2월은 태양이 너무나 밝게 빛나기 때문에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나는 그때
 여호수아를 위하여 “태양이 머물러 있었던” 아얄론 골짜기에서
 막 돌아온 길이었으며 참으로 그날 나를 위해서도 태양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같이 보였다. 나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며 앉아있는 동안 그때와 똑같이 태양의 치유해 주는
 광선이 따뜻한 액체처럼 내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나의
 근심하는 영혼을 쉬게 하고 평온하게 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이 나의 인생에 대하여 좀더 높은 차원의
 관점으로 승화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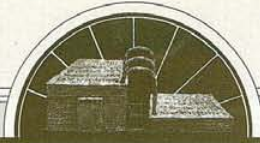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영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많은
 일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느니라. 정말로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네 눈이 계속해서 태양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니라. 내
 아이야.”

그분이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온을
 누리리라.”(교성 19 : 23)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나는
 정말로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으며 내 생활이 첫 시작부터 항상
 그의 손 안에 있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또 인생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주면서 의를 행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는 모든 여성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어떻게 내적인 화평을 갖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참으로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
 가며, 주님의 영의 은유함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화평을 갖게 될
 것이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했던 홀랜드 자매는 유타주 프로보 오크힐즈
 스테이크 오크힐즈 제4와드에서 상호부조회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브리감 영
 대학 총장인 제프리 알 홀랜드 형제의 부인이다.



몰몬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특별한 의미를 지닌 축복”

매리 엘렌 에드먼즈



나는 열네 살 때 마침내 니파이 일서를 다 읽었다. 아마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부분적으로는 주일학교 공과반에서 “예, 저는 몰몬경을 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나는 마음 속으로 이 책은 나의 생애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책이라고 느꼈다. 우리 부모님과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싶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읽음으로써 더 빨리 그렇게 느끼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몇 차례 “읽을” 때는 매번 새 책을 샀으며, 아마 성구에 빨강색 표시하는 것을 읽는 그 자체 못지 않게 재미있어 했던 것 같다. 나는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그 책을 펴는 것을 좋아했으며 몇 권은 빨강색 표시되지 않은 성구가 오히려 눈에 띄었다. 점차적으로 나는 빨강색 표시한 데서 느끼는 자부심이 이 거룩한 책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안의 일부 사람들 개인적으로 아는 것같이 느꼈으며 다시 수없이 반복해서 되돌아가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 세상의 말일성도 중에 몰몬경을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도 읽어 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나로서는 짐작도 못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1962년 극동 선교부 남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아직 중국어로 된 몰몬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내가 이 경전의 고마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대만에 도착한 지 며칠 후, 최근에 침례받은 미키 창이라는 젊은이를 만났다. 나는 그가 나에게 와서 몰몬경에 있는 내용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몰몬경에 대하여 좀더 알기를 원했다. 그는 그 책을 읽기를 원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미키는 몰몬경을 읽지 못하면서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면서 울었다. 나는 이해력이 커진 가운데 주님에게 이 충만한 복음을 모든 나라, 족속, 방언, 백성과 함께 나누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기를 열심히 간구하기 시작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경험은 경전에 대한 나의 인식과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게 해주었다. 필리핀에서 봉사하는 동안 동반자와 나는 어떤 훌륭하고 마음씨가 온화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영과 근원에 대하여 점차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으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는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혹시 우리가 그의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로 된 성경을 한권 찾아와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마닐라의 어떤 서점에서 그것을 찾아내어 그에게 가지고 갔다. 그는 경건하게 양손을 뻗쳐서 우리로부터 그 성경(양비블리아)을 받았다. 그는 감동어린 음성으로 “나는 이전에는 성경을 내 손에 잡아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침례받은 후에 계속해서 성경과 몰몬경을 읽었으며, 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배웠는지, 특히 몰몬경을 얼마나 더 빨리



단순히 물문경을 읽기보다는
 각국의 구도자들이 물문경을
 읽고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은
 경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
 자신의 소망을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배웠는지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성신의 도움으로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방문하면, 그는 경전의 여백에 적어놓은 것을 모두 우리에게 보여 주고, 하나님의 책을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면서 직접 경험한 감동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쁘게 지키고자 소망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경전을 상고하려는 나 자신의 열의를 더 깊게 해 주었다.

1976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물문경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언어로 아직 번역되지 않은 곳에 다시 가게 되었다. 우리의 헨드릭 고우트 선교부장이 이 거룩한 책을 번역하고 있는 사람을 방문하려고 자카르타 북쪽의 반둥시로 나와 동반자를 데리고 갔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특히 마침내 물문경을 읽을 특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교회 회원들은 그 일이 곧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물문경 번역이 끝나 출판되고 배부될 때 나는 그곳에 있었다. 물문경이 처음 출판된 1830년에 분명하게 나타났던 그런 감미롭고 깊은 감정이 그때 그곳에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감격스러운 일은 큰 의미를 지닌 축복이었다. 나의 인도네시아인 동반자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물문경을 꺼내고 잤다.

물문경에는 언젠가는 내가 좀더 잘 알게 되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다. 나는 이 책이 좀더 길고 좀더 상세하고 좀더 많은 경험과 또 어떤 일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나는 야곱이 말한 것에 대하여 좀더, 또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행한 십사 년 간의 선교 사업에 대하여서도 좀더 알고 싶다. 니파이와 리하이 형제로부터 좀더 많이 배우고 싶다. (힐라맨서 3:21, 5 참조) 구세주께서

돌아가신 후 생긴 대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세주께서 방문하신 후 이백년 동안 생활이 어떠했는지 좀더 알고 싶다. 그러면서도, 이 책에 담겨 있는 감미롭고 강력하고 생활을 바꿔 주는 메시지에 감사한다. 어떤 특정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 생활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완전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치고 도울 수 있도록 이때까지 주어진 것을 귀하게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

유타주 매플턴 스테이크 매플턴 제5와드 회원인 매리 엘렌 에드먼즈는 유타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의 훈련 책임자 보조이다. 또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나를 울린 니파이삼서

라즈 아케브란트



교

회의 많은 젊은이들처럼 나도
물몬경을 읽지 않는 구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다.

여름에는 하늘이 맑고,
겨울에는 운동을 하느라, 다른 책을
읽어야 한다거나, 좀 게으른 성미 등등
많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읽기
시작했을 때에도 니파이일서 4장에서 더
나아갈 수 없었다. 니파이가 레이벤의
목을 자른 것에 관한 기사를 읽었을
때의 충격으로 인하여 열 다섯 살이 될 때까지 물몬경을 더 읽는
것을 미루게 되었다. 비록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성경에
있는 비슷한 기사도 알고 있었으나, 나에게서는 니파이가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은 올바르게 생각되지 않았다.

나는 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건축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당시
스웨덴 선교부의 알빈 더블류 플랫폼 선교부장은 간증을
강화시켜야 할 젊은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임무를 띠고 떠날 때 귀환하기 전에 교회의 표준
경전을 모두 다 읽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스톡홀름 남쪽의
구벤겐 예배당에서 몇 달 일하고 핀랜드의 탐페레에서 잠깐 일한
후 투르쿠로 갔다. 그곳에서 성경을 다 읽은 후 이제 물몬경을
펼쳐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 건축 부지로 매일 걸어서 가고
오면서 본 것 이외에는 그 도시에 대하여 별로 기억나는 것이
많지 않다. 물몬경으로 인하여 너무나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하여 많이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매일 읽기를
계속하기 위하여 일터에서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이때가 처음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굽주리고 목마른 시기였다.
집회소의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매일
밤 니파이와 기타 물몬경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이 참되다는 간증을 받았다.

물몬경에서 내가 좋아했고, 또 지금도
좋아하는 부분은 니파이삼서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을 읽으면서, 내가

실제로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심령을 기울여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니파이삼서 십구장에 필적할 수 있는 것은 경전의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 번 울었다.

지금 나는 처음에는 레이벤을 죽이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했던 니파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그의 의로운 목적을 성취한 것에 감사한다. 니파이와 또 그
이후에 이 성스러운 기록을 보존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이 비한
데 없이 훌륭한 경전인 물몬경을 통해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즈 아케브란트는 구라파에서 성도의 벗 편집 자문으로 봉사하며 현재 서독의
프리드리히스도르프에 살고 있다.

행복

독신자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없음

마울라 밀텐버거

여 러분의 “독신” 상태가 기쁨을 느끼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

행복을 얻는 목표는 우리 생활에서 영구히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잡기 어려운 것인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페이지)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는 것을 물문경에서 훌륭하게 확신시켜 주고 있다.(니파이서 2:25) 주님과 또한 여러 세대를 통하여 그의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모든 인도와 훈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행동 진로를 알아야 할 것 같다. 불행히도 세상에는 행복이 아니라 불만과 불안을 가져다 준 목표를 추구하여 일생의 많은 부분을 소비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필경 잘못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가 나빴을 것이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예로써,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목표 가운데





하나는 영원한 결혼을 성취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므로 독신 여성이 이런 축복을 그리워하고 결혼하여 부모가 되지 못하면 행복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미혼이기 때문에, 혹은 결혼했으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또는 결혼했으나 이혼했기 때문에 자신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느낌이나 혹은 패배감까지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심리적인 벽을 쌓고, 그런 상태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목표가 성취될 수 있는 훗날로 미루어 둔다.

결혼과 자녀는 가치있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말일성도 독신 여성이 너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까다롭거나 독립심이 강하거나 결혼이나 가족보다는 사회 진출이나 독신 생활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결혼하여 부모가 되는 것은 그들이 꿈꾸는 것이며 마음 속으로 가장 깊이 갈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에게는 적절한 기회가 없다. 또한 그들은 어쩔 수 없는

다른 이유로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

예언적인 권고

몇몇 예언자가 이 주제에 관하여 크게 위안이 되는 몇 가지를 말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훌륭하신 독신 자매 여러분은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싫은 혼처를 마지못해 받아들여야 할 필요나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적당한 환경이 되면 주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의식을 받고 인봉의 축복을 받고자 하며... 아직 그때가 여러분에게 이르지 않았더라도 주님은 그때를 마련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에 따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도 거절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구원의 교리 2:68)

행복

절대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 영원한 결혼의 교리와 자녀와 가족의 중요성은 모든 말일성도 남녀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수많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현실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계만 보아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결혼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단지 기다리기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 있는 것일까?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올바른 길로 추구함

만일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면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교회의 독신 회원도 기혼자처럼 기쁨과 행복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기혼 여성으로써 나는 즐겁게 생활했으며 지금의 생활도 그렇지만, 나의 결혼 생활은 지금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생활과는 달랐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배우자가 모두 상대방의 복지와 행복에 관심을 갖고 배우자가 행복을 얻도록 돕는 책임을 떠맡을 때 오게 된다. 독신자의 생활에서는 만족스럽고 충만하고 행복한 생활을 개척하는 책임은 주로 그 개인이 지게 된다. 독신자로서 행복을 얻으려면 약간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훌륭한 삶”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재미있고 만족스러운 일, 매일 필요한 것을 해결할 충분한 수입, 교육과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의 기회, 만족스러운 사교적 교류(특히 가족 내에서), 일상 생활에서의 어느 정도의 미, 문화 및 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 노력을 기울일 만한 훌륭한 명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 등을 들 수 있다.

오늘 날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부분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참으로 노력해야 한다.

여성은 평균해서 남자보다 팔 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여성은 보다 더 교육과 훈련과 경험에 있어서 더 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며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다. 그리하여 결혼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여성은 평생에 한 동안은 독신으로 지내게 될 것이다.

유타주의 작은 마을에서 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 독신녀인

스테나 스킨은 주부이며 교회 역원, 사회 봉사 위원, 시립 도서관 위원에 읍장을 겸하고 있다.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스테나 스킨과 그와 같은 여성들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공공 교육, 간호, 사무실 업무, 가사와 관련된 업무 등의 많은 부분은 이런 여성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들은 또 교회 일, 지역 사회 봉사, 자기 가족에게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자녀는 어떠한가?

독신 여성이나 자녀가 없는 여성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힘든 장애물의 하나는 그들이 부모의 역할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여성은 어린이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나 자신의 경험을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에는 독신 여성이나 자녀가 없는 여성이 보여 줄 수 있는 관심과 사랑과 봉사와 모범과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는 어린이가 얼마든지 있다.

나에게는 자녀의 축복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혼 초기에 여러 해 동안 허전한 느낌이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나는 내가 친척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어린이들의 특별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단 일주일이라도 내가 낳지 않은 어린이들과 맺은 훌륭한 관계를 상기시켜 주는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적은 극히 드물다. 친부모의 경우와 똑같이 그런 관계를 쌓으려면, 관심을 보여 주고, 그들의 느낌과 필요 사항을 주의깊게 찾아내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모두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주의해서 시기를 택하여야 하며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한다.

사랑은 뜻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심지어는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위한 배려에서 또 말로 표현한 사랑을 상대방을 위하여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진정한 사랑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사랑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기회는 많이 있다. 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신권, 가족 도움

많은 독신 여성은 자기 집에 신권이 없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았다. 우리 가족 내에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인 형제, 삼촌, 형부, 조카 등이 있으며 일부 미망인과 이혼녀에게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인 아들과 사위가 있다.

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가 허락하면 우리를 위하여 신권을 행사할 감독, 정원회 지도자, 가정 복음 교사, 가정의 밤 그룹의 남자 회원이 있다.

아마도 독신자의 모든 역할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역할은 독신 부모가 혼자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혼자서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어린이를 다루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린 자녀에게는 남녀 양측으로부터 모두 좋은 모범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친척(조부모, 숙모, 삼촌, 사촌)이 이런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을 때가 흔히 있다. 가족 이외에도 보통 신권 지도자, 아론 신권 정원회 고문, 가정 복음 교사, 감독, 꿀벌반, 장미반, 월계반 교사가 있다. 상호부조회 가사 공과반도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확신과 인도를 필요로 하는 어머니를 도와 줄 수 있다.

특히 독신 부모를 위한 세미나에서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대학의 빅터 엘 클라인 박사는 많은 독신 부모가 이혼한 후에 버림받은 느낌과 실패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낙담과 자존심의 상실이 뒤따를 때가 흔히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자기 연민에 빠져들고 모든 좋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혼한 사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 앙심과 상실심으로 인하여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클라인 박사는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치료책으로서 육체적인 운동을 권한다. 육체적으로 활발하게 계속 움직이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복음도 또한 그런 감정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책을 제공해 준다. 이런 치료책은 꾸준한 영적인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기도와 신앙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의 사랑을 찾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를 찾는 것이다.

한 가지 생활 방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는 풍요한 축복을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예지와 모든 능력을 다 행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복음은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 복음은 성장하고 향상하는 수단이다. 복음은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주는 열쇠이다. 남편을 잃은 사람과 이혼한 사람을 포함하여 독신으로 생활하는 말일성도들은 많은 시련과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위안과 인도와 훈계를 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고 폭넓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영원한 역할에 관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상호부조회, 신권 정원회 및 활동 프로그램을 주셨다.

독신 여성에 대한 상호부조회의 유익에 관한 나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자 한다.

칠 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죽은 후, 나는 인생이 내가 저야 할 시련보다 더 많은 시련을 안겨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교적 젊은 여성으로서 아마도 남은 여생을 혼자 보내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노라면 굉장한 자기 연민과 반항심이 생겼다. 이런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 본부 상호부조회에서 어떤 직책을 받아들이고 본부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내가 가족과 친구를 떠나 멀리 솔트레이크시티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으며 그 직책에서 내가 맡은 일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 일이 만족스러우면서도 나는 일하는 세계의 밖에서 여전히 친구와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나는 상호부조회에서 우리 와드에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복음 공부에 참여하고 다른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의 간증이 강해졌다. 그로 인하여 나의 소중한 여성으로서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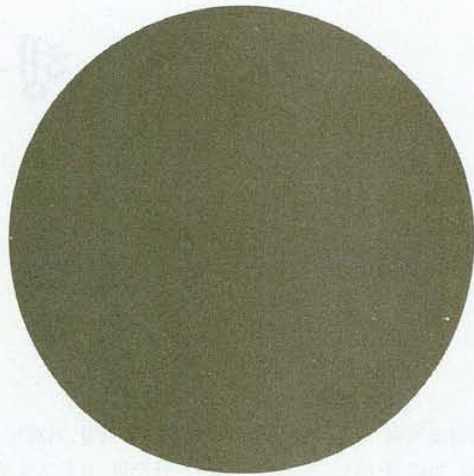
특성이 나타났으며 나는 집안 일과 더불어 봉사할 기회도 찾아냈다.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생활의 압박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견해를 갖게 되었다.

나는 행복의 처방을 찾던 중에,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발견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1)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며 (2)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며 (3)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해야 하며 (4)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행복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행복의 비결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행복은 행복 그 자체와 사이가 좋은 가슴 속의 따뜻한 불길이다.’”(인스트라터, 1960년 11월호, 422페이지)

그 내적인 화평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상태의 변화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오게 된다. 모든 독신 말일성도가 합당한 동반자와 결혼함으로써 그런 자신의 상태를 즉시 바꿀 수 있다면 참으로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받은 행복과 기쁨은 이딘가 상자 속에 들어 있어서 나타나게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향유하도록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잭 에스 마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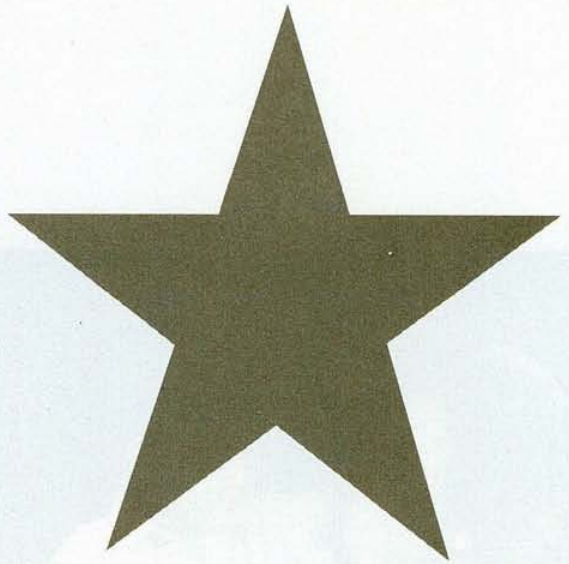
실제의 사건으로 우리 반원들과 나는 우리 가운데 거의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에도 동년배의 압력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년 전 나는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과 가장 성공적인 몇몇 학생으로 가득 찬 세미나리 반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다.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그들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사교적인 면에서 압력 단체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동년배의 압력...연령 그룹의 이런 태도의 영향력이 어느 날 수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다. 우리는 모두 우리 가운데 거의 누구든지 동년배 압력에 굴복할 수 있다는 슬픈 교훈을 배웠다. 그 일의 전말은 이러하다.

나는 부정적인 동년배 압력에 관한 잡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 기사에서는 어떤 실험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우리 반 학생에게 시험해 보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그 시험은 동년배 압력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가를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 주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나는 그 시험이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다음 날 아침 수업 시간에 나는 그 시험에서 지시한 대로 했다. 나는 칠판에 별, 원, 타원형, 사각형을 하나씩 그렸다. 나는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 시간 동안 칠판에 있는 그 그림을 별, 원, 타원형, 그리고 삼각형이라고 말하기로 한다고 했다. 사각형은 틀림없는 사각형이지만 이제 삼각형이라고 하고 다른 것으로는 부르지 않아야 했다. 곧 그들은 의심하지 않는 방문객에게 그 사각형이 실제로 삼각형이라고 확신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가장 영향력이 많은 다섯 명의 학생을 교실 앞의 의자에 앉게



했다. 그들은 미식 축구 선수, 여러 가지 학교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여학생, 학교 학생 회장, 최우등생, 시도한 것은 무엇이든 성공시키는 젊은이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섯번째 의자는 우리의 방문객인 일학년 신입생을 위하여 비워 두었다. 그는 곧 자신이 그 고등학교에서 “최우수 학생” 사이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반원들은 그를 환영했으며 그는 긴장을 풀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교실 앞의 그 빈 좌석에 앉도록 권했다. 나는 그의 순서가 되면 칠판에 그린 물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의했다. 다른 사람들이 미소지었다. 공과가 시작됐다.

나는 “미식 축구 선수, 칠판에 있는 물체를 알아맞혀 보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굵은 남자다운 목소리로 “별, 원, 타원형,”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그 사각형에 이르렀을 때 자신있게 “삼각형”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방문객은 자기 자신을 잊고 웃음을 터뜨렸으나, 그 방에 있는 나머지 사람은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곧 그 미식 축구 선수의 분명한 실수를 인정할 것을 기대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 보았다. 그러나 우리 반원은 모두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 사각형은 삼각형에 불과했다. 그 신입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 다음 나는 여학생을 보았다.

“칠판에 있는 물체의 이름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사각형을 사각형이라고 함



그 여학생은 진지하게 “별, 원, 타원형, 삼각형”이라고 대답했다.

그 신입생은 초조하게 그의 자리에서 안절부절했다. 반원들은 모두 조용히 있었다. 두번 더 똑같은 질문을 했다. 학생 회장과 그 성공적인 학생들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대답했다.

이 무렵 우리 방문자는 약간 기분이 나쁘게 보였으며 그의 표정으로부터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등생이 내 질문에 답했다. “별, 원, 타원형, 삼각형.” 이제 그 신입생 차례가 되었다. 하나씩 말할 때마다 그의 음성은 점점 더 약해지고 떨리고 자신감이 없어졌다.

“별, 원, 타원형”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도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마지막 물체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자, 어서, 무엇이지?”

그러자 마침내 그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삼각형”

나는 우리가 모두 크게 웃는 것으로 그 순간의 긴장을 깨뜨릴 것으로 생각했다. 그 시험이 성공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학생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모두 깊이 생각에 잠겼다. 몇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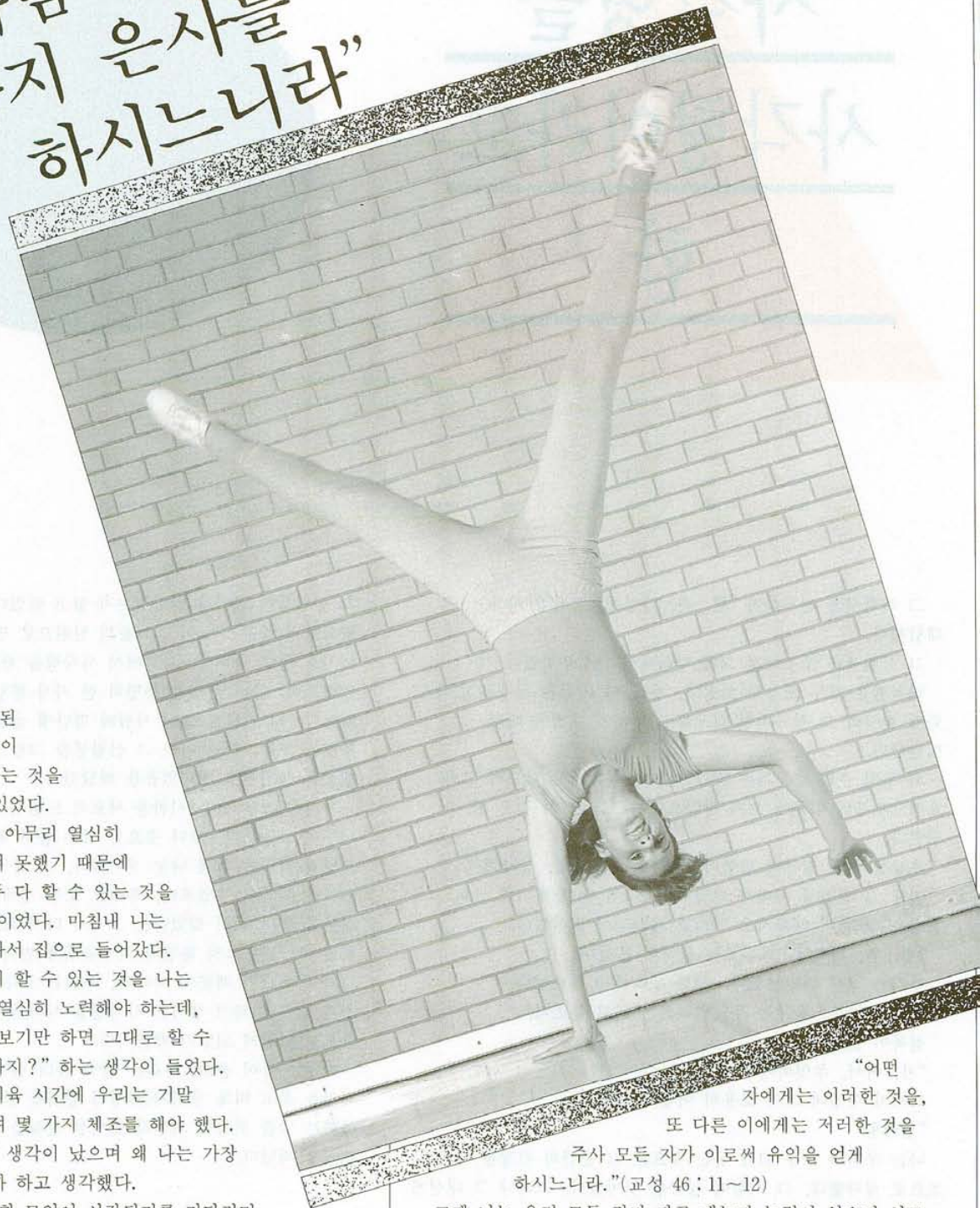
그때 나는 어떤 것을 깨달았다. 그 교실에 있는 사람은 모두

그 신입생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고 있었다. 사람은 판단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느 그룹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일원이 되기를 원한 나머지, 자진해서 사각형을 삼각형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으며, 올바른 것은 분명히 한 가지 뿐일 때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내 이름도 그런 사람의 명단에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특히 나는 그 신입생을 그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했음은 불친절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날 남은 시간을 서로의 느낌과 후회의 감정을 서로 나누며 보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좀더 용감해지려는 열의와 희망과 열망을 함께 나눈 것이었다. 그 축구 선수는 그 신입생의 어깨를 껴안아 주었으며, 우리도 모두 전에 압력에 굴복하는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음을 그에게 다시 확신했다. 수업이 끝날 때 그는 그의 동년배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그가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과 어떤 결과가 생기든 사각형을 사각형이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는 종이 울려, 우리는 함께 좀더 현명해지고 더욱 큰 희망을 품고 비록 우리가 세상의 압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것을 위하여 의연히 일어설 결심을 더욱 마음속에 다지며 교실을 떠났다. □

“각 사람에게에는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느니라”



토나 와닉

나는 열 살 된
우리 사촌이
체조를 하는 것을
보며 서 있었다.

나는 열 두 살인데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체조는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마음대로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마침내 나는 구경하는 것이 싫증나서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왜 사촌 동생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못하지?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저 아이는 무엇이든 보기만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더니. 나는 왜 못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날 학교 체육 시간에 우리는 기말 점수를 매기기 위하여 몇 가지 체조를 해야 했다. 다시 나는 사촌 동생 생각이 났으며 왜 나는 가장 간단한 동작도 못할까 하고 생각했다.

일요일이 되어, 교회 모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경전을 보던 중, 교리와 성약에 있는 두 구절에 관심이 끌렸다.

“무릇 모든 은사가 다 저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나니, 많은 은사가 있음이라. 각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써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느니라.

“어떤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또 다른 이에게는 저러한 것을 주사 모든 자가 이로써 유익을 얻게 하시느니라.”(교성 46:11~12)

그때 나는 우리 모두 각자 다른 재능과 능력이 있으며 서로 격려하고 돕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성구를 읽은 후 나는 더 이상 체조를 못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나는 사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기쁜 생각이 들었다. □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스터얼링 더블유 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



얼마 전에, 나는 한 무리의 방문객에게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 사무실 건물

안내를 해주라는 부탁을 받았읍니다. 그들은 교회 교리와 교회 지도자의 역할과 교회 조직에 대하여 보다 많은 것을 알기를 원했읍니다. 그들은 크게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는 유쾌한 토론 시간을 가졌읍니다.

그렇게 안내하는 동안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고는 “실 형제님,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읍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질문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놀랐읍니다. 나는 “괜찮으시다면 그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읍니다.

“첫번째 답은 자매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확신하는데 본 적이 없다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며 또 완전히 정확한 것도

경전은 우리가 주님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의 생각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두번째 답을 덧붙여서 1903년 3월 31일에 태어난 날 이후로는 그분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분을 여러 번 보았읍니다.”

경전에서는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매우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수없이 그분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읍니다.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배우는 것은 모두 단지 기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이며, 현재의 우리 존재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하늘에서 그분의 면전에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구세주에 관한 많은 것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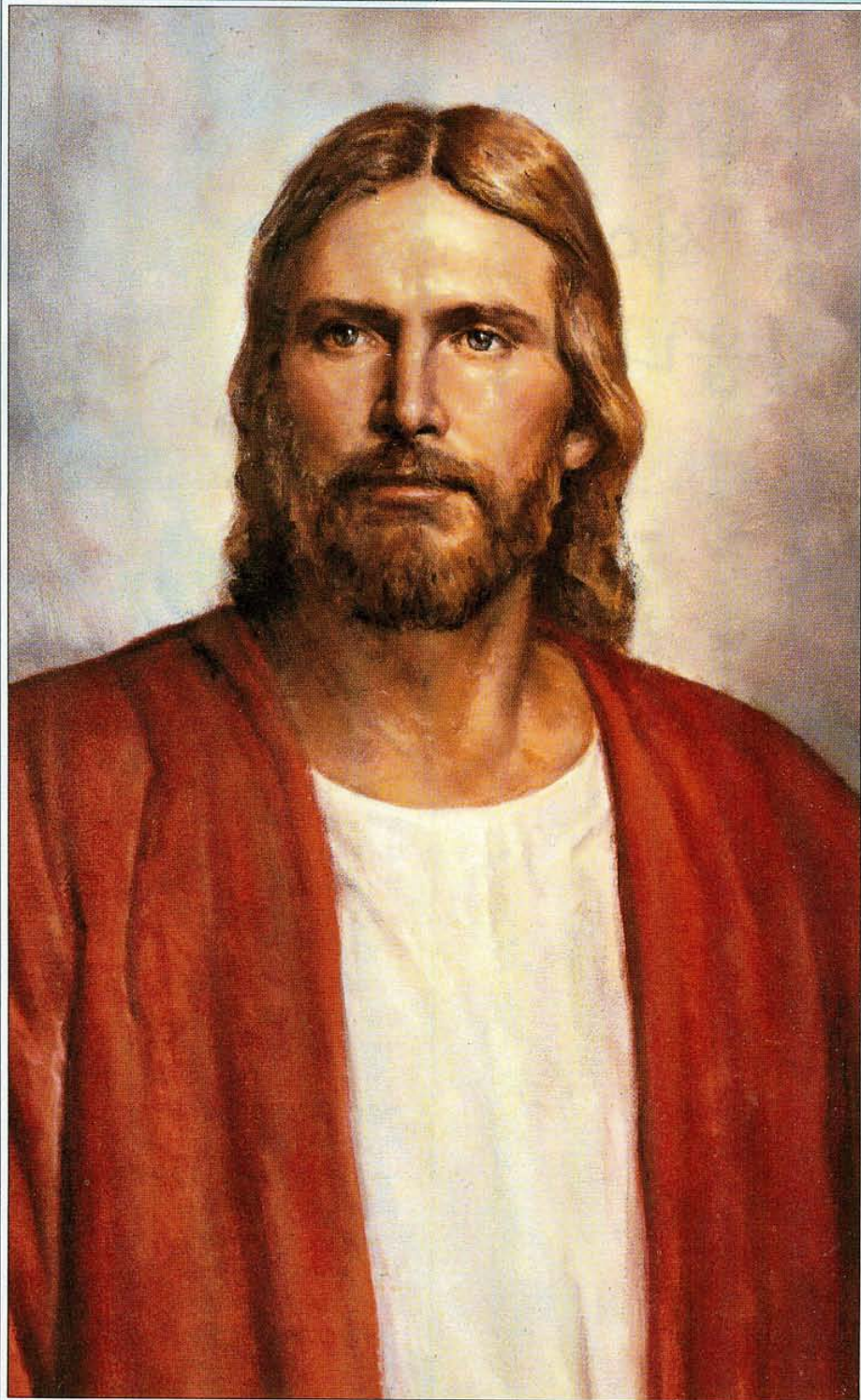
“이제 세번째 대답입니다. 내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후 나 자신의 영을 본 적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나는 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직접 주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로 인해 기록하게 된 네 권의 위대한 경전을 여러 번 매우 세밀하게 읽었습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나는 그분을 본 사람들의 간증으로부터 그분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압니다. 그리고 또 그분에 관한 다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밧모섬에서 계시자인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날에 자신이 영 안에 있었으며 그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이 울리는 위대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말한 분이 누구인지 불려고 몸을 돌려서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3~14)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의 시현을 보았을 때, 그는 그들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 2:17)

이 생에서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손녀가 행복할 때 그 어린 아이의 눈에 나타나는 표정을 묘사하려고 할 때, 끈경을 겪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든지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고 있었다.”는 등의 말로 표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 표현 둘 다 틀립니다. 내 손녀의 눈은 항상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행복할 때에는 내가 알기는 하지만 표현하기는 어려운 어떤 것이 그녀의 얼굴을 통하여 빛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광채와 영광은 수없이 증대됩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이라고 말씀으로써 그의 음성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나에게서는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지닌 아주 좋은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음성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듣기에 아름다운 맑고, 조화로우며 공명되는 소리를 냅니다. 그의 발음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어떤 연사는 바울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고전 14:8)라는 말로써 설명한 대로 다른 종류의 나팔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지 않거나 관심을 끌 수 있을 정도의 재미있지 않은 나팔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내 손녀의 것보다 뛰어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공명이나 아름다움에 있어서 내

친구의 음성보다 훨씬 더 훌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한 다음 또 주님을 얼굴을 마주하여 보았습니다. 예언자는 그분의 모습이 어떤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교성 110:3) 그것은 정말 대단히 밝은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특성으로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도 어느 정도는 소유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부활하신 모로나이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으며,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분의 온 몸이 형용할 수조차 없이 희었으며 그분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고”(요셉 스미스 2:32)

그의 외모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의복도 눈부시었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분은 좀 늘어진 지극히 흰 성의를 걸치고 계셨으며 그 흰색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것이었고 세상에는 그토록 희고 찬란한 것이 있다고 믿기조차 못할 것이었습니다.”(요셉 스미스 2:31)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매력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에게 기도하면서 “저의 내면이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나는 영성의 역사로 아름답게 된 평범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영은 가장

평범한 육신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이 생에서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이루어진 위대한 대속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비슷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해의 왕국의 부활에 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곧고 좁은 길의 과정을 알려, 또 우리가 해의 왕국에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그 과정을 따라야 하는지 압니다.

한번은 주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더) 복되도다”(요 20: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라고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유익한 점과 더불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고 모두가 마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기뻐할 때인 주님이 지상에서 복천년간 통치하기 위하여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일에 대비하여, 우리 눈에 더 빛나는 광채를, 우리 가슴에 더 큰 빛을, 우리 영혼에 더 순수한 불을 갖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러면 그날 우리가 실제로 직접 그분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